

Sulwhasoo

VOL.70 NOVEMBER/DECEMBER 2015

Sulwhasoo

VOL.70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5





부귀영화 - 불멸 / 이지숙
111×85×6cm, 테라코타 위에 아크릴 채색, 2015

벽에 걸려 있는 화려한 색채감의 작품은 첫눈에 예쁘다는 감탄사를 자아낸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뿔어져 나오는 기운이 화려한 색채만큼이나 각양각색의 감성으로 다가온다. 무심코 바라보면 종이나 비단에 그려진 2차원 평면처럼 보이지만, 모두 높낮이가 다른 흙으로 만든 3차원의 입체 도자 조형품으로, 음영이 주는 미묘한 매력이 발산된다. 이지숙 작가의 작품들은 모두 테라코타 기법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부조, 즉 테라코타 릴리프다. 테라코타 표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된 색채의 미감은 마치 전통 동양화 기법 중 하나인 진채화와 같이 사물의 표면이 지닌 실물적인 질감과 그것이 머금고 있는 색의 깊이감을 그대로 간직한 듯하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품은 이미지보다는 실물 자체가 가진 시각적, 촉각적 입체감을 직접 맛보아야 그 감성에 공감할 수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This artwork with glamorous colors is amazing with its pretty appearance at first sight. Look closer and the energy it evokes will be impressive with various sentiments as strongly as its colors do. It may look like a 2D drawing on paper or silk, but it is actually a 3D porcelain sculpture made with clay in various heights. The shade radiates exquisite charm. All of Ji Sook Lee's pieces are terra cotta relief colored with acrylic paint. The aesthetics of acrylic paint on terra cotta seems to cherish the true texture of objects and the depth of their colors as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With these qualities, empathy with the sentiments of her work is only allowed with the taste the visual and textural dimensions of the objects themselves rather than just the images.

Sulwhasoo

NOVEMBER / DECEMBER 2015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0 NOVEMBER/DECEMBER 2015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08
품격 있는 삶
다정한 마음을 담아 나누다

12
피부 섬기기
피부 시간을 가꾸어 본연의
생기를 되살리다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다

22
新 공간을 보다
예술을 품고 다시 태어난 창작의 거리

28
건너다
말레이시아, 설화수와 만나 내면의 빛을 발하다



누 리 다

36
설화인
그녀의 우주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파티,
문정희

42
어우러지다
일상을 누비며 순간을 빛내다

48
설화풍경
白이 만들어낸 切割靑의 絶景

52
설화보감
알싸한 인삼, 味感을 깨우다

58
설화수를 말하다
심상을 사로잡는 고운 얼굴의 자태

64
디자인 기행
복잡 미묘한 그러나 그들만의 확고한,
인도



익 히 다

72
배움의 기쁨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물 같은 순간

78
한국의 멋
수저에 담긴 인문人文

82
읽다
절망의 시대, 희망으로 피어난 예술가

86
설화애장
보이는 것 저 너머에

88
집 안 단장
차 향기 가득한 운치의 공간

90
몸 단장
정성이 담긴 선물은 곧 마음이어라

92
마음 단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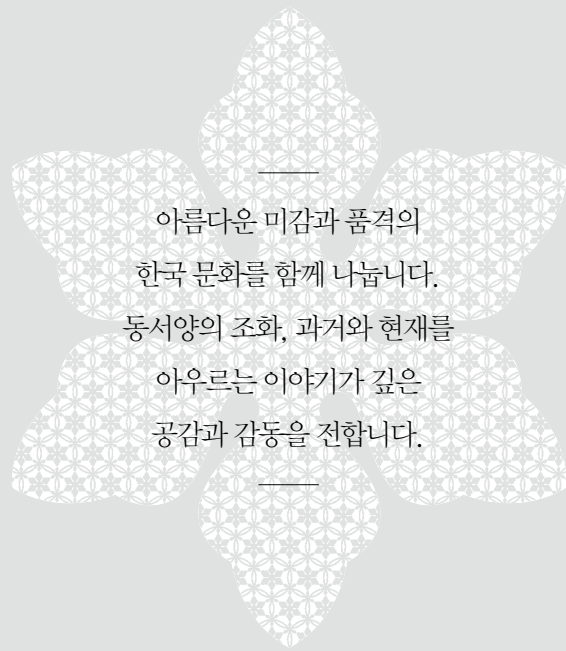
94
설화 헤리티지
아름다운 전통에 새롭고도 젊은 에너지를
불어 넣다



96
설화수 뉴스
97
문화 즐기기
98
설화수 프로덕트 맵
100
독자 선물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천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요형
발행일·2015년 11월 2일(통권 제70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서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다정한 마음을 담아 나누다 *Sharing Friendly Hearts*

가족과 이웃, 주변 지인들과 정을 나누는 연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곳곳에 물씬하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류로 드 플로디아

연말의 하루하루는 평소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그중에서도 의미가 각별한 날이 있다. '겨울이 극에 이르렀다'는 뜻의 동지冬至가 바로 그날이다. 그믐을 열흘 남짓 앞둔 시기. 길기만 하던 겨울밤은 이날을 고비로 한 뼘씩 짧아지기 시작한다. 낮이 길어진다는 건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의 소생을 뜻하는 바, 일 년 중 가장 긴 그날 밤을 넘기고 나면 이윽고 세상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는 부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토록 뜻깊은 날을 옛사람들이 허투루 보냈을 리 없다. <동국세시기>에는 동지를 '아세亞歲(작은 설)'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동짓날 조정에선 옥새를 찍은 새해 달력을 하사했고, 관리들은 그걸 친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하선동력夏扇冬曆'. 여름(단오)엔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동지)엔 달력을 선물한다는 뜻으로, 시절에 딱 어울리는 안성맞춤의 선물을 의미한다. 임금에게서 시작되어 온 나라로 퍼져 나간 달력엔 풍년과 태평성대를 향한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동지 풍습의 대명사는 팥죽이다. 옛사람들은 팥죽의 붉은색이 음귀를 쫓는 데 효험이 있다고 믿었

Each day feels more valuable at the end of the year, but there's a day that's particularly special. It is Dongji (冬至), which means "winter has arrived at its prime." It is about 10 days to the end of the month. The long winter nights will become shorter little by little after this day. This must also have been a special day for the traditional people. 『Dongguk Sesigi』 states that Dongji was known as "Ase (亞歲, small New Year's Day)." The king bestowed the new calendars for the coming year with the royal seal on this day,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distributed them to their relatives. "Haseondongryeok (夏扇冬曆)" is an expression that originated from this. It means that a fan is given in summer (Dano), and a calendar in winter (Dongji). Haseondongryeok is used to describe the best gift for the season. The king's calendars that spread across the kingdom likely reflected the people's fervent wish for good harvests and prosperity. The most popular custom of Dongji is eating patjuk (red bean porridge). In the past, people believed that the red color of patjuk could drive away bad spirits. They made patjuk and placed fresh patjuk here and there in their homes to



색실누비 노리개는 정은진 공방 김정옥 작가의 와인 색상 1인 피쳐와 이우규 작가의 나무 트레이는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작은 세라믹 잔은 이선영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베네치안 스타일 와인색 유리 볼은 애슬린

다. 그래서 밤이 가장 길어 음기 또한 가장 센 동짓날이면 막 쑤어낸 팥죽을 집 안 곳곳에 놓아두었고, 식은 뒤 식구들끼리 나눠 먹곤 했다. 이때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나이보다 한 개 더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게 된다고 믿었다. 이렇듯 귀신을 쫓는 주술인 동시에 나이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했던 세시풍습이 바로 동지 팥죽이다.

일본에도 동지가 되면 팥죽과 팥빵을 먹는 풍습이 있다. 반면 중국에선 동짓날 교자만두를 만들어 먹는 풍습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동지가 지나면 일본인들은 흰 종이로 정성스레 포장한 연말 선물(오세이보お歳暮)을 주고받으며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보낸다. 중국에선 12월을 납월臘月이라 부르는데, 고대 중국에선 12월 8일에 시작되는 납제臘祭가 대보름까지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중국에선 12월 8일을 '납팔일臘八日'이라 부르며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다.

설날 그믐날 밤은 계석除夕 혹은 제야除夜라 부른다. 옛사람들은 이날 친척 어른이나 스승을 찾아다니며 '묵은세배'를 올렸다. <동국세시기> 설달 편에 보면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거리의 등불이 줄을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민가에선 마루, 방, 부엌 등에 환한 등잔을 켜놓고 신년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수세守歲'라 한다. 간혹 어린아이들이 줄음에 겨워 눈을 감으면 "제야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며 야단을 치기도 했다. 밝은 불빛으로 세밑의 몹쓸 기운들을 몰아내고 맑은 정신으로 새해를 맞는 이런 풍습은 다른 곳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 특유의 전통이기도 했다. S

protect them from the bad spirits throughout the longest night of the year. When the porridge had cooled, they shared it with the whole family. They believed that they would age a year only if they ate one more sweet rice ball in the porridge than their current age. Putjuk for Dongji was a kind of sorcery for protection, and a folk custom for counting one's age. Japan has a custom of eating red bean porridge and red bean bread on Dongji.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 long tradition of making jiaozi dumplings on Dongji. After Dongji, the Japanese exchange year-end gifts (oseibo) carefully wrapped in white paper and send season's greetings to their acquaintances. In China, the month of December is called "Napwol (臘月)" because ancient China celebrated Napje (臘祭) from December 8 to January 15 of the lunar calendar. China still considers December 8 an important day and calls the day "Napparil (臘八日)." The last day of the year is called "Jeseok (除夕)" or "Jeya (除夜)." Traditional people visited their relatives or teachers on that day for the "bow." The December section of 『Dongguk Sesigi』 includes the following description: "The lines of lanterns on the streets were lit from early evening to late at night." The commoners lit up their rooms and kitchens with oil lamps and stayed up until the new sun of the New Year rose. This custom is known as "Suse (守歲)." This custom required one to greet the New Year with a clear spirit under a bright light. It was a unique tradition of Korea that is hardly found anywhere else.



이우규 작가의 손집이 있는 원형 받침과 김정옥 작가의 나뭇잎 모양 수저받침은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굵 있는 직사각 형태의 접시는 강유단 작가 작품으로 다이닝오브제

피부 시간을 가꾸어 본연의 생기를 되살리다

Turn the Clock to Renew Skin's Natural Vitality

계절이 변한다 한들 얼굴 위로는 언제나 풍성한 윤택함이 넘쳐흐른다. 차고 메마른 겨울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피부,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과 자음생진본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하지만 다가올 새해의 설렘보다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 먼저 다가온다면 활기찬 시작을 위해 무엇보다 실천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간과했던 눈가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눈가는 나이를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눈가만 잘 관리해도 얼굴 전체가 생기 있어 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자음생아이크림의 강인한 효능이 필요하다. 인삼 잎과 줄기는 물론 뿌리의 효과로 부드럽고 윤택한 눈매로 가꿔주는데 특히 수정재배 인삼의 잎과 줄기는 피부의 힘을 살려 또렷하고 아름다운 눈매로 가꿔주고 인삼뿌리에서 찾은 설화수만의 안티에이징 결정체인 Compound K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눈가 피부를 조밀하게 감싸는 탄탄한 텍스처가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 변화를 선사하는 만큼 그냥 바르기보다는 눈 밑과 눈두덩, 눈썹 위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인삼의 유효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어 보다 탄탄한 눈가 피부를 선사한다. 또렷하면서 생기 넘치는 눈가, 자음생아이크림은 일거양득 이상의 빛나는 효능을 안겨줄 것이다.

It's time to wrap up another year. It's also a time to think about things to do for a fresh start. Start with taking care of the very important but often overlooked part of the face: the eye area. The eye area tells much about a person's age, so taking good care of it can brighten up the entire face. The powerful efficacies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offer the perfect solution. The leaves, stems, and roots of ginseng leave the eye area smooth and refined. The leaves and stems of ginseng grown underwater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eye area, leaving it firm and beautiful. Compound K, which is Sulwhasoo's original anti-aging essence found in the roots of ginseng, helps with wrinkle correction. Also, the firm texture densely wraps the eye area for deeply hydrated and resilient skin. Gently massage the under-eye area, eyelids, and eyebrows using fingertips for deeper absorption of the ginseng formula, for more visible result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will surely result in radiant and beautifully defined eyes full of vitality.

자음생아이크림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은 물론
또렷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꿔주는
설화수 자음생아이크림. 25ml.



유리로 만든 한 송이 꽃처럼 색
유리를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고
프릿과 스트링어 등을 이용하여
만든 유리 문진은 박선민 작가 작품.



도자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도자 미니 오브제는 김자연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자음생진본유

메마른 새 없는 촉촉한 윤기와
더불어 생기를 선사하는
설화수 자음생진본유. 20ml

겨울은 참으로 모진 계절이다. 메마른 대기와 영하로 떨어진 기온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극심한 건조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조금만 손질을 게을리한다면 피부는 안팎으로 균형을 잃어 거칠어지고, 수분과 더불어 유분의 부족으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피부는 정성을 쏟은 만큼 겉으로 드러나기에 겨울철 극도로 건조해진 푸석한 피부라면 자음생진본유의 힘을 빌려 정성을 다 해야 할 때다. 옛 여인들은 조절한 피부를 위해 참깨와 들깨, 살구와 목화씨 등에서 기름을 채취해 얼굴에 발랐는데 자음생진본유는 설화수만의 과학기술을 이용, 인삼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담아 효능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인삼 종자유는 극심한 피부 건조를 케어하며 깊은 보습감과 피부 방어력을 키워주는데 이는 1년에 한 번 채취하는 하나의 인삼씨에서 미량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으로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극심한 피부 건조를 케어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준다. 또한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동백유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마유(참깨를 압착해서 얻은 에센셜 오일)를 더해 윤기가 살아 있는 맑은 피부를 선사한다. 겨우내 피부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자음생진본유와 함께 차원이 다른 유택함으로 거듭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S

Winter is a harsh season. The dry air and the below zero temperature cause extreme skin dryness regardless of skin type. Without protective measures, the skin will lose its balance inside and out, becoming rough, lacking moisture, and subsequently accelerate aging. Winter care for the skin comes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Traditional women extracted and applied oil from sesame seeds, perilla seeds, apricots, and cotton seeds for dry and damaged skin due to imbalanc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has applied Sulwhasoo's original scientific technology to capture the oil extracted from ginseng seeds and to maximize its efficacies. Ginseng seed oil relieves extremely dry skin by providing deep hydration and skin defense benefits. It is a rare type of oil from ginseng seeds that can only be extracted in small amounts once a year to fortify the skin's defense capacity and leave it smooth and hydrated at the same time. Also, the anti-oxidizing camellia oil is blended with sesame oil (essential oil acquired by pressurizing sesame seeds) to strengthen the skin barrier, resulting in radiant, clear skin. For best protection and defense for the skin in winter, experience the next level of refinement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자 음 생 진 본 유
사 용 법**

Step 1
자음생크림 전 단계에 진본유를 1회 손바닥에 펴핑한 후 두 손을 잘 비벼 내용물의 온도를 올려준다.
Before applying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pump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once onto your palm and rub your hands together to warm it up.

Step 2
처진 볼을 원위치로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뺨의 바깥쪽을 쓸어 올려준다.
Using your palms, sweep the outside of your cheeks upward to restore their original position.

Step 3
양손의 중지 와 약지를 사용해서 턱 밑 → 입 꼬리 → 콧방울 → 눈썹을 지나는 곡선을 그려준 다음 관자놀이로 가서 지그시 눌러준다.
Using your middle and ring fingers, draw a curve from under your chin to the tail of lips, nostrils, and eyebrows, then gently press temples.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다

Bernd Halbherr

베른트 할프헤르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백남준이 수학했던 뒤셀도르프 예술대학에서 만난 아내(김현주 작가)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지난 2006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베른트 할프헤르 교수는 2012년에 태어난 아들 노아 덕에 여전히 한국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제호



<World Cup Stadium> 등 베른트 교수의 대표적인 구球 작품들.
<Transplantationen, Media City Seoul Southkorea> Computer prints, 2000



<Hanok> Photographic collage,
Coated with plastics, 30cm, 2004

독일인과 민족성이나 기질이 크게 다른 한국을 경험한 소감이 궁금하다. 1995년 첫 방문 전까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서울의 엄청난 인구밀도와 소음을 동반한 역동성이었다. 질문처럼 독일이 아시아의 일본과 유사하다면, 한국인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사람들처럼 기예에 능하고 흥이 많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기질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한국의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건축물을 포함한 한국의 건축물을 통해 한국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한국인이 추구하는 미, 특유의 기후나 자연 조건,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한 것이 한국의 전통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풍경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그리고 한국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름답다고 느낀 풍경은 한둘이 아니다. 제주의 한라산과 남해 바다, 설악산 등...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따라서 한국을 하나의 색깔로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은 한 가지 색으로 묘사하기엔 너무 많고 또 빨리 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을 보고 강렬한 노랑으로 표현하려다가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 라이트블루만큼 잘 어울리는 색이 없다.

I wonder how you feel about South Korea,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ermany in terms of ethnicity or traits. Before I made my first visit in 1995, I had almost no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 My first impression of South Korea was the enormous density of the population in Seoul and how dynamic and noisy it was. As you said, Germany could be compared to Japan in Asia whereas South Korea is as artistically talented and passionate as the countries in southern Europe, like Italy or Spain. They tend to be very straightforward and cannot hide their emotions very well. I think these traits are clearly reflected by the South Korean architecture. I learn a lot about Koreans through South Korean architecture, including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reflects the beauty being pursued by the Koreans as well as the climate, natural conditions,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Which landscape of South Korea has been most memorable to you, and which color do you think best describes South Korea?

There are so many landscapes that struck me as beautiful. It is amazing that Mt. Halla and South Sea of Jeju as well as Mt. Seorak have different faces every season. As such,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Korea using just one color. Korea has so many faces and changes so fast that I cannot pick just one color to describe it. I would pick an intense yellow during the hot summer or light blue during the fall.

사진이란 장르를 작품 영역으로 끌어들이 이유가 있는가? 초기에 거울을 이용해 풍경을 부분적으로 비추는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다 어릴 적부터 취미였던 사진을 작품의 소스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사진은 독일의 교회나 음악당에서 한국의 한옥이나 호텔까지 무제한의 피사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진만이 전부는 아니다. 미술에 물리학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당신의 작품은 마치 지도처럼 자연경관이나 도심의 건축물 등을 피사체로 삼고 있는데, 관객들이 그런 피사체를 통해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관객의 개인적 체험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세상을 이용해 새롭게 재창조한 세상 속에서, 작품을 보는 사람이 중심이자 주인공이었으면 한다. 그건 우리 세대가 경험한 유럽의 지배적인 철학이기도 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나를 중심으로 숲이, 도시가, 야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거다. 나를 구심점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세상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평면적인 사진에 3차원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구구를 쓴 것인가? 의도는 없었다. 작업을 하다 보니 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전에는 프린팅 또는 루프(띠)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다 360도로 촬영한 사진을 구로 만들면 관객이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 한국 관객들은 유독 구로 만든 작품을 선호한다.

Is there a special reason for your having brought photography into your work? At first, I tried using a mirror to reflect parts of landscapes. Then it occurred to me that it wouldn't be bad to use photography as a source of my work as it has been my hobby ever since I was young. Photography can capture any object, from the churches and conservatories in Germany to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the hotels in South Korea.

Your work uses natural landscapes or urban architecture, just like a map. What do you expect the audience to see through those objects? I don't intend to give them a particular message. It is meaningles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at way. What's important to me is their personal experience. I want the viewers to be the center of and the main character in the world that has been newly recreated using the world that actually exists. That's also the dominant philosophy of Europe that I experienced in my generation, that "I am the center of the world." The forest, the city, and the night view show a panoramic view that surrounds me. I want them to feel the world that moves and changes around them.

Did you use a sphere to breathe life into the two-dimensional photographs? I had no special intention to do so. The sphere was "made" as I went on. I used to work with printing or loops (bands). Then I thought it would give the audience a unique experience if I turn the 360° panoramic view into a sphere and found that the South Korean audiences particularly prefer creations in the form of a sphere.

예술 작품은 세상을 인식하는 작가의 철학적 암호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작품에 철학적 의도나 목적을 심지 않는다. 내겐 특별한 철학도 남다른 종교적 신념도 없다. 굳이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나의 철학과 유사한 종교를 꼽으라면 불교에 가깝다. 엄격한 교리나 율법 대신 윤회나 생명, 상생, 자연의 순리 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작품을 통해 은연중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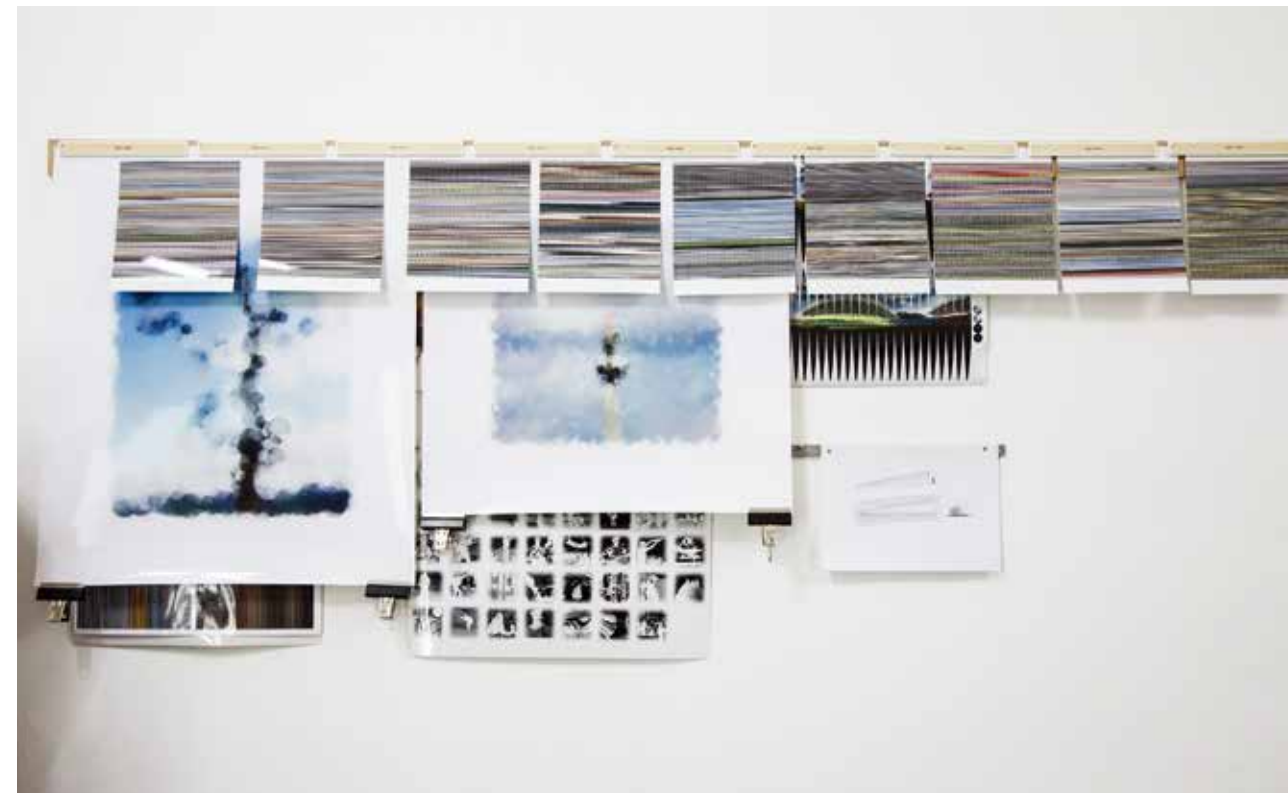
작가가 아닌 교수로서 만난 한국의 예술가 지망생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와 제자들은 성장한 배경과 문화, 타고난 천성이 다르다. 따라서 그들에게 내 색깔이나 인생관을 덧입히고 싶지 않다. 그들 고유의 '질감'을 존중할 뿐이다. 설령 내 영향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고유함을 잃지 않길 바란다. 교수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예술가의 기본 자질은 자기만의 개성을 갖는 것인데, 한국 학생들의 비주얼적 재능은 흠잡을 데가 없는 반면, 콘셉트 측면에서는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천한 것인지? 12월에 개인전이 계획돼 있다. 기존의 구형 작품들 외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오픈 소스를 이용한 인터넷 이미지 변형작과 재미있는 3D 프린팅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계단 위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한국에서는 전시된 적이 없는 이전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장기 계획을 묻는 거라면,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 교수가 될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교수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들 노아가 생기면서 남편이자 아빠가 됐으니 말이다. (웃음) S

Artworks are likely to imply the artist's philosophical code for viewing the world. Is this true in your case? I don't plant any philosophical intention or purpose in my work. I don't have any particular philosophy or religious faith, but if you ask me to pick a religion that's similar to the philosophy I pursue through my work, it would be Buddhism. It emphasizes the eternal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coexistence, and the law of nature instead of strict doctrines or commandments.

What have you found about the future artists of South Korea whom you have met as a professor, not as an artist? My students and I have different backgrounds, cultures, and natural traits so I don't wish to cover them with my color or impose my viewpoint on them. I respect their own "texture." I wish they wouldn't lose their originality even if they're influenced by me. There's one thing I feel sorry about as a professor, though. The basic quality of an artist is finding a unique personality. My Korean students' visual talents are flawless, but they're weak in terms of concepts.

What do you plan to do in the future? I'm scheduled to have an exhibition in December. I'm planning to exhibit the new variations of online images using open sources and fun 3D printing work, in addition to the sphere pieces. If you're asking me about my long-term plan, I'd like to say that "I have not lived as planned until now." I'm teaching students now when I had no plans of becoming a professor, and I've become a husband and a father thanks to my son, Noah, when I had no plans of getting married (laughs).



베르트 교수는 사진을 작품의 소스로 활용한다. 사진을 플라스틱 구에 매핑하는 그의 작품은 비현실적 공간을 만들지만 아름답다.

예술을 품고 다시 태어난 창작의 거리 *The Street of Creativity Reborn with Art*

철공소와 철재상가가 밀집한 문래동 골목.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이 역사적인 거리는 산업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빛을 잃고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삭막한 잿빛이 난무하던 거리가 언제부터인지 알록달록 색을 입고 활기를 띠며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문래예술공장



건물 옥상에 위치한 문래도시텃밭의 <발레리나>. 문래도시텃밭은 문래동 예술인들이 함께 농사지으며 소통하는 공간이다.





1 문래창작촌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인 <빨간 모자 소녀>는 대안공간 '이포'로 들어서는 골목길에 그려져 있다.

2 어느 건물로 올라가는 입구에 걸린 철로 만든 물고기 조형물.

3 철공소 사이 골목 곳곳에 아담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방문객들을 반긴다.

4 옥상에 오르면 다양한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사람 빼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할 만큼 최고의 금속가공 기술로 1970~80년대 대규모 공장지대를 형성하며 큰 호황을 누렸던 문래동. 그러나 문래동을 가득 채웠던 철공소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게 됐다. 그 빈자리를 홍대 앞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채우기 시작한 것. 홍대 상권이 발달하면서 비싼 임대료가 버거웠던 젊은 예술가들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문래동에 등지를 틀며 '문래창작촌'이 탄생했다. 자생적으로 발달한 대안공간인 것. 이후 2010년부터는 서울시가 철재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문래창작촌을 포함,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 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이 함께 문래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래창작촌에는 회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무용가, 연극인, 사진가 등 다양한 예술가 약 25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는 매일 철을 다듬고 용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문래동은 예술가들의 창작촌이기 이전에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철공소를 운영하고 철공업에 종사하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일까? 문래동에 정착한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지 않았다. 비좁은 골목과 건물 옥상의 콘크리트 벽과 바닥, 철공소의 서터문 등에 화려한 색감의 그림을 수놓았다. 철공인들의 숙련된 기술을 빌려 예술가가 함께 만든 철재 표지판과 조형물들은 거리 곳

Mullae-dong flourished as a large factory district in the 1970s and 1990s, with an advanced metal processing technology. It is often said that "people are the only things that cannot be made," but the metal processing plants that filled the streets of Mullae-dong shut down one after another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began to change in the 2000s. The artists who used to be active in Hongik University have moved here to fill the vacancies. The younger artists who could not afford the expensive rent in the Hongik University area settled in Mullae-dong, with relatively affordable rent rates, eventually creating "Mullae Creative Town." Since 2010, Seoul City has been operating Mullae Creative Town in the remodeled shopping center for metal materials, and Mullae Art Space, a creative space for many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Seoul City and the artists at Mullae Creative Town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development of Mullae-dong. About 250 artists are currently working together at the town, including painters, illustrators, designers, dancers, actors, photographers, and various artists.

Creative spaces of artists are not the only places found in the district. The sound of refining and welding steel can still be heard every day. Since before the coming of creative artists to the district, Mullae-dong has been the home of people who have been operating steelworks and doing their jobs for a long time. This is probably why the artists in Mullae-dong have not concentrated only in their creative activities. They have also embroidered the narrow alleyways, the

곳에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몇몇 건물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건물 옥상에 자유롭게 오르 내릴 수 있는데, 옥상에 오르면 작가들이 작업한 옥상 벽화와 설치 작품, 문래도시텃밭을 만날 수 있다. 또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대안공간, 갤러리, 공방 등은 문래동의 매력을 배가하며 경계 없는 예술지대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나 벽화와 설치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서울 이화동벽화마을이나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떠올린다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이따금 낯음과 지저분함의 경계가 모호한 공장지대의 원형을 그대로 맞닥뜨릴 수도 있고, 벽화는 골목 안쪽에 아기자기하게 자리하고 있어 놓치고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간의 흐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문래창작촌의 풍광은 이곳만이 가진 정서이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래창작촌에는 거리 예술 말고도 다양한 전시와 연극, 퍼포먼스, 음악 공연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친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헬로우문래협동조합의 아트페스타 '헬로우문래'는 대중과 같이 즐기고 서로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 성격의 페스티벌이다.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에서 생활 예술 작품을 배울 수 있는 '예술체험 워크숍', 문래창작촌 투어인 '올래? 헬로우문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대중을 맞이하고 있다.

철공소와 예술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동네, 문래창작촌. 이 공간이 전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곳곳을 찬찬히 들여다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하기 바란다. S

concrete walls, the floors of rooftops, and the shutters of the steelworks with colorful pictures. The steel signs and structures created by the artists with the skills of steelmakers provide unique things to see on the streets. Some buildings allow free access to the rooftops filled with the rooftop murals, installations, and urban farms of the artists. It may be disappointing, however, as it is nothing like Ihwa-dong Mural Village in Seoul or Gamcheon Cultural Village in Busan just because there are murals and installations. There are factory lots that are stuck between being old and filthy, and the murals are easy to miss because they are hiding in the alleyways. Nevertheless, the view of Mullae Creative Town, which displays the flow of time in the heart of Seoul, has its unique sentiment and ambiance.

Mullae Creative Town boasts various things to see and enjoy besides the street art, such as exhibitions, plays, performances, and music concerts. <Hello, Mullae>, the monthly art fiesta of Hello Mullae Cooperative, is a campaign launched to invite the public to visit the town and to enjoy and share its value. The town also greets the public with programs like "Art Market" for trading artworks, "Art Experience Workshops" for arts and crafts classes, and "Wanna Come? Hello, Mullae" for a tour of Mullae Creative Town. Mullae Creative Town - a town where steelworks and arts live together. Anyone who hopes to hear more of its stories can feel free to pay it a visit when there is enough time to carefully explore the streets.



1 버려진 찻집을 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안공간 정다방프로젝트. 황성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2 서울시 창작 공간 사업의 일환인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창작촌과 예술가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말레이시아, 설화수와 만나 내면의 빛을 받하다
Malaysia, Radiating Light with Sulwhasoo

정통 한방 비법과 현대 과학의 정수로 만들어진 한국의 설화수.
피부 위로 드리워진 고민을 말끔히 걷어내며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얼굴에 아름다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코버스



말레이시아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말레이시아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배우 크리스 텡(Chris Tong), 패션 디자이너 셀레스트 토이(Celest Thoi), TV 프로듀서 엘리나 에펜디(Elyna Effendi).... 맑은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에 당당한 글로벌 워킹 우먼이라는 것과 다부진 표정, 빛나는 피부 그리고 모두 한국의 설화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롤 모델이기도 한 그들이 선택한 설화수는 론칭과 더불어 피부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며 조용하고도 큰 울림으로 브랜드의 입지를 다졌다.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설화수는 로컬의 색과 더불어 다양한 인터넷서널의 감성이 믹스된 도시인 쿠알라룸푸르에 우아한 첫 매장을 열었는데, 오픈 첫날부터 현지 여성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재 파크손 파빌리온(PARKSON Pavilion)백화점을 비롯하여 총 4개의 매장에서 전문가들의 섬세한 카운슬링을 통해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피부 타입과 고민에 알맞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만들어진 단아한 벽 장식과 깔끔함이 돋보이는 설화수 PARKSON KLCC 매장. 이곳에서 많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탄생한다.

The choice of Malaysia's opinion leaders

Actress Chris Tong, fashion designer Celest Thoi, and TV producer Elyna Effendi.... These women with beautiful smiles have many things in common: they are confident working women who are active globally. They boast strong minds, beautiful faces, and radiant skin. But more importantly, they all use Korea's Sulwhasoo. Named as role models of many Malaysian women, they all have chosen Sulwhasoo, which also has had a deep positive effect on the skin of many local women since its launch. Pursuing beauty inside and out, Sulwhasoo opened its first store in Kuala Lumpur, a city that mixes local colors with various international sentiments, and attracted the explosive attention of the local women since the first day of its operation. Sulwhasoo currently has four stores, including the ones at PARKSON Pavilion Department Store, and offers dedicated counseling by experts, with various products that fit different skin types and address the concerns of the Malaysian women.

아시아 뷰티의 정수, 설화수로 고민을 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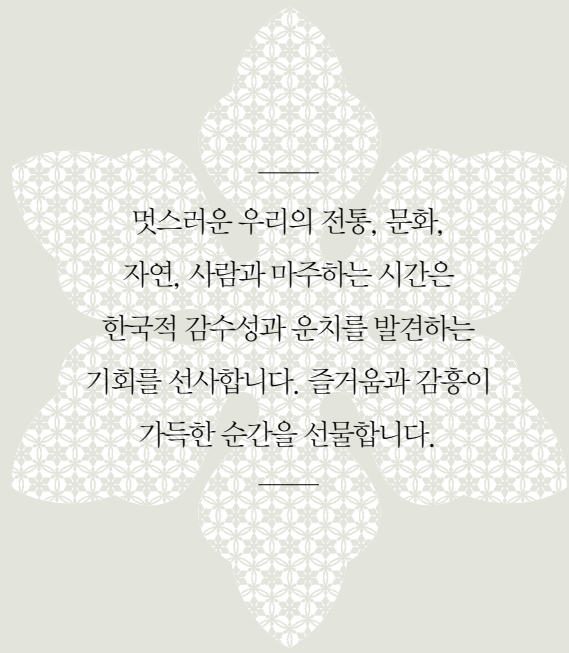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열대우림의 고온다습한 기후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름의 치솟는 뜨거움까진 아니더라도 겨울에도 따뜻한 영상권을 맴돈다. 하지만 현지 여성들이 겨울이 되면 느끼는 건조함과 그로 인해 생기는 주름과 탄력 저하는 우리의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설화수의 풍부한 영양감과 획기적인 제품력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전통 한방 소재들이 그렇게 영험한 효력을 갖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배우 조엔 유(Joanne Yew)의 말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특유의 허브 향과는 다른 설화수의 은은한 한방 향기는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귀한 원료를 사용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 하나하나에 깃들인 정성을 더한 제품력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S

Resolve skin concerns with Sulwhasoo, the essence of Asian beauty

Like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Malaysia has the typical hot and humid climate of tropical rainforests. Although it is not sizzling hot in the winter as it is in the summer, it is still rather warm, with an above 0°C temperature. The local women thus experience dry skin in winter, developing wrinkles and losing their skin's resilience, as most Korean women do in winter. As such, the local women in Malaysia found Sulwhasoo's rich nourishment and innovative products very impressive. "It was a very special experience; I never expected such miraculous effects from the traditional herbal ingredients of Korea," said actress Joanne Yew. The subtle scent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herbs, different from the unique herbal scent of Southeast Asia, was so special as to capture the hearts of the local women. The powerful yet safe products formulated with precious ingredients through original scientific systems are making the skin of Malaysian women healthy and beautiful.

현대와 전통의 서로 다른 듯 닮은
감성으로 가득한 말레이시아의 시티뷰.
헬리 리운지 바에서 바라본 야경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





Moon

문정희

Jung Hee

그녀의 우주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파티

그녀는 생생의 완벽한 호스트다. 절망이나 좌절이라는 손님도 절대 함부로 하는 법이 없다. 좋은 평판을 가졌다고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사려 깊고 무엇보다 공정하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첫 번째 별, 현실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크게 손을 흔들었다. 혼자 배낭을 메고 문을 두드린 뒤, 미리와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스태프들을 향해 한껏 상기된 얼굴로 “반가워”라고 말하는 배우는 처음이었다. 반짝, 별이 빛났다. “집이 이 스튜디오에서 5분 거리예요. 집 앞이니깐 걸어오는 게 편하죠.” 문정희는 이렇게 자주 걸어 다닌다. 여배우의 우아한 산책이 아니라 세상에 섞이는 평범한 걷기다. “땅에 발 딛고 살고 싶어요. 현실의 나와 화면 속의 나는 다르잖아요. 평상시 카메라 앞에 많이 있어서 자칫하면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조명이 나를 밝혀줄 뿐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 사는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그녀는 허구의 세상을 연기하는 것과 진짜 삶의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다. “배우가 아닐 땐 그냥 가정주부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해요. 오늘 신랑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와요. 저녁을 뭘 해줄까 고민했어요. 이게 삶이죠. 우리 엄마도, 친구들도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별, 고난의 시간

평범하다는 걸 모르고 연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문정희는 그래서 평범한 인간 문정희에게 관심이 많다. “배우가 하는 연기는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드라마에 극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평범하다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결국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은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문정희’라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한다. “이 지구 속의 얼마나 작은 점이에요. 제가. 그 작은 점이 대한민국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는 제 인생이 아니라 제가 겪은 제 인생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자신의 삶에 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정희. 힘든 일도 사는 일 중 하나니 무척대고 싫거나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암울한 시기가 있었죠. 저에게도. 서른 초반이었고 친구들은 모두 자리를 잡는 것 같았고, 회사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일은 안 들어오고, 계약 때문에 다른 일은 못 하고 3년 동안 그저 기다리는 게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그런 시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견뎠냐고 하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또한 처음이었다. 고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사람을 만난 것은. “물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다그치고 질책하고 물어뜯고 몰아세우기 바빴죠. 가만히 두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볼 것도 보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나니까 나란 사람에게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반짝, 또 다른 별이 움직였다.





세 번째 별, 사람

이렇게 문정희는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씩 꺼내어놓으며 자신의 우주를 소개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 둥둥 떠 있는 듯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다. “그때는 저를 믿어서도 아니고 그냥 버텼어요. 도망가지만 않았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텐데 다행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그때 만났죠. 그 시절엔 가진 것도 없고 앞도 캄캄해서 감정을 다 보이며 서툴게 굴었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이 됐잖아요. 또 그렇게 힘들 때 세상에 빛을 내던 동기들, 이선균 배우, 오만석 배우 이런 친구들이 먼저 나가서 잘될 때 정말 감동적이었죠.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멋지다, 정말 좋다.” 질투보다는 같은 시대에 같은 꿈을 꾸 친구들이 제 몫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

드라마 <마마>에서 함께 연기한 배우 송윤아의 수상 장면을 기억한다. 진심으로 기뻐하던 모습. 자신의 영화 <카트>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일영화상을 받았을 때의 얼굴과 다르지 않았다. “송윤아 씨는 워낙 고운 분이세요. 함께 작업한 파트너가 상을 받았는데 당연히 기뻐요. 저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정이 있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또 다르게 빛나는 별, 사람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 상대를 존중할 때 빛나는 그 별이 반짝였다.

네 번째 별, 오늘 하루

기다림과 즐거움과 인지상정이 함께하는 그녀의 파티에 초대돼 한참을 어울리다 보니 문득 성공이 궁금해졌다. 성공은 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일까? “성공, 글썄요. 성공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두고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단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눈앞에 놓인 것들에 도전해요. 당장 오늘 있을 신을 잘 만들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살아요.” 이미 너무 감사하게 좋은 신랑과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문정희. 동명이인 시인 문정희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도 당장 마실 깨끗한 물 한 잔이 없으면 어찌느냐고, 시는 세상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정희의 우주에 초대받아 함께 파티를 즐기고 나오면서 배우 문정희야말로 당장 마실 깨끗한 물 한 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를 이끄는 수많은 배우가 넘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빛내줄 깨끗한 물 같은 배우. 이제 곧 새롭게 시작되는 드라마 <달콤한 패밀리>에서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 앞으로 오래도록 문정희의 연기를 볼 때마다 그녀의 빛나는 별들을 기억할 것 같다. S

메이크업 강연진(파인트리바이전 02-542-3302) 헤어 신차진(파인트리바이전) 스타일리스트 윤미경
 도움 주신 곳 루카엔젤이(02-518-7555), 봄빅스엠무어(02-3443-1579), 루키버드(02-517-8762)

일상을 누비며 순간을 빛내다

검이불루儉而不陋,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華而不侈,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시간이 흘러도 현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살아 숨쉬는
소담한 누비와 화사한 비단이 있는 일상의 풍경.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누비와 비단이 빛어낸 아름다움

서양의 패치워크나 퀼트보다 무심한 듯 고운 미를 간직한 누비는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여인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 오로지 추위를 막기 위한 보온용에서 컬러를 입히고 다른 소재를 덧대어 독특한 패션 아이템으로 선보인다. 화려함이 눈부신 비단 또한 용도의 제한을 벗어나 화사한 색감과 전통의 무늬가 더해져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긴하고도 어여쁜 소품으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왼쪽 퍼가 트리밍된 배색 누빔 조끼는 모두 규방문화연구소, 붉은 색감의 누빔 슬리퍼는 해브민서울.
오른쪽 와인빛의 누비와 비단소재 조각 비늘방석, 그리고 비단과 배집지로 만들어진 비늘집 노리개는 모두 김묘진 작가작품으로 묘규방, 명주비늘방석은 한정혜작가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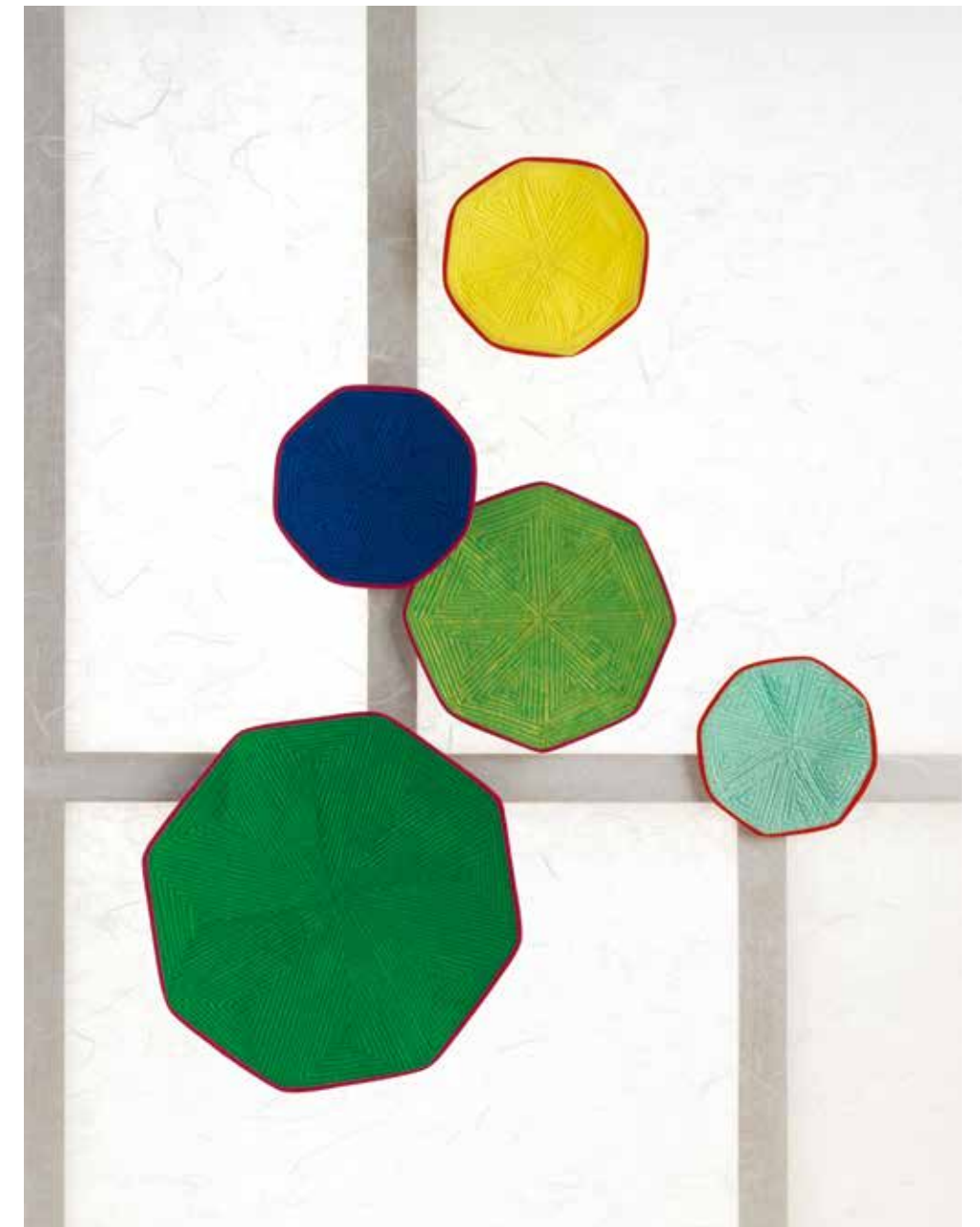




왼쪽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머스터드와 퍼플 컬러치는 통영누비로 MEMORI. 오른쪽 색감이 화려한 단색의 통영누비 코스터는 원래 용도인 차받침은 물론 장식품으로도 훌륭한 아이템이다. MEMORI.

화려한 듯 고운 색감으로 탄생

비단의 화려함이야 예나 지금이나 고운 색을 같이하지만 화색이나 연한 미색 등 무채색의 덩덤함으로만 표현되던 누비의 변화는 그를 우리 곁에 한 걸음 가까이 둘 수 있게 한다. 화려한 색감을 맞이하여 더 이상 고루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된 것 대량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들과는 달리 수작업이나 소규모 생산을 통해 사람의 숨씨가 그대로 느껴지는 정감 가득하고도 멋스러운 아이템으로 만날 수 있다.





전통의 가치를 품고 현재를 반기다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색깔과 문양, 선과 면 등에 현대 작가의 감성을 더해 만든 작품들은 그 어떤 오브제들보다 웅장한 모를 강인함이 풍겨 나온다. 뿌리 깊은 근본의 역사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기운이 대대로 이어져 오기 때문인 것이다. 전통의 누빔과 비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국적인 심미안의 감성 역시 시간을 타고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왼쪽 모던함으로 재해석된 그릇은 김경수 작가
작품으로 치림, 누빔 싸개는 정은진 작가 작품.
오른쪽 비단 싸개는 정은진 작가 작품, 단색의
비단보는 호호당.





白이 만들어낸 切情의 絶景

눈은 말이 없이 대지를 산을 그리고 바다를 덮는다. 앙상한 날것의 모습으로
눈을 맞이한 자연은 시리도록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안식처를 찾은 듯 온몸 그대로
하얀 눈을 받아들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산 천초목을 뒤덮은
하얀 눈의 속삭임

형용할 수 없는 백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인 풍경 속 눈의 일렁임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나무 위로 내려앉은 눈꽃들은
크리스탈보다 영롱한 빛을 내며 보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무심했던 일상과 풍경이
그림이 되는 순간

단풍의 다채로움을 견어낸 나무 위로 내려앉은 눈꽃 송이들은 저마다의 소리로 서로에게 유화의 언어를 선사한다.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상의 모습들이 눈과 함께 잊을 수 없는 한 장의 흑백사진으로 남겨지는 순간이다.

천 년 동안 쌓인 적송의 기운으로
더욱 강해지니

모든 것이 숨을 죽이는 계절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는 자연의 놀라운 진리. 적송의 기운으로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진설크림과 진설유액에도 그러한 자연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한국의 소나무인 적송에서 발견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한결같은 생기와 건강함을 부여하는 진설 라인으로 피부는 더욱 소리 없이 강인해진다.

알싸한 인삼, 味感을 깨우다

The Bitterness of Ginseng Awakens the Sense of Taste

보양식의 주재료로 어렵게만 여겨졌던 인삼이 이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요리 재료가 되어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다른 소재와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진 인삼의 색다른 요리, 향과 맛 두 가지 모두를 잡은 人蔘味感.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우리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삼은 세계가 인정한 약용 식물로 효능의 뛰어난 역시 만천하에 알려져 있다. 밥이 보약이던 옛 시절 인삼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재료였기에 몸이 허함을 느낄 때, 특히 기온이 떨어지며 한기가 스미는 겨울에 체온을 끌어 올려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인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귀하기만 했던 인삼이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6년근 인삼으로 만든 전통 비법의 보양식부터 맛과 향이 부담스럽지 않은 1~3년근 인삼으로 만든 퓨전 인삼 요리들은 겨우내 움츠러든 우리의 미각을 춤추게 하는 흥 많은 재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inseng, born and grown in Korea, is a medicinal herb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nd its excellence is known to everyone. As ginseng was invaluable when there was not enough food to eat, it has been widely used to warm the body for a stronger immune system when the body feels weak, especially when the temperature drops in winter. As ginseng farming has become popular, ginseng has come in close proximity to our lives. From the traditional healthy foods prepared with 6-year-old ginseng to the fusion dishes made with 1- to 3-year-old ginseng with milder flavors and tastes, ginseng has become an enjoyable ingredient that awakens the sense of taste.



버섯과 어우러져
맛이 고운 샐러드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인삼 달가슴살구이





인삼 버섯샐러드 초간단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깨끗이 씻어 물을 털어낸 야채에 무화과, 양파, 볶은 버섯을 순서대로 넣은 후 얇게 슬라이스한 인삼을 넣어주면 끝. 소스 역시 아주 심플하다. 흑초에 올리브오일을 섞어 샐러드에 살포시 얹기만 하면 된다.

인삼 닭가슴살구이 담백한 닭고기와 인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메인 요리다. 센 불에서 닭가슴살을 덩어리째 굽는데, 이때 큼직하게 2등분한 인삼과 파를 함께 볶으면 재료 본연의 맛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낸다. 인삼은 구우면 살짝 단맛이 생기기에 인삼의 쓴맛을 꺼리는 사람들도 묘한 미감을 즐길 수 있다. 소스는 닭 육수와 머스터드, 꿀을 섞어 졸인 후 먹기 직전에 뿌린다.

인삼 푸딩 곱게 간 인삼 1개(35g 정도)에 생크림과 꿀, 우유 그리고 찬물에 불려 중탕에 녹인 젤라틴을 넣어 잘 섞어준다. 푸딩 컵에 담아 냉장실에 넣고 1시간 정도 굳힌다. 이때 볼 안에 얼음을 채운 후 푸딩 컵을 넣으면 부드러운 푸딩을 빨리 먹을 수 있다. S

Ginseng Mushroom Salad It is super-easy for anyone to make. Simply rinse and dry the vegetables and top with figs, onions, pan-fried mushrooms, and thinly sliced ginseng. The sauce is also very simple. Mix dark vinegar with olive oil and sprinkle all over the salad.

Grilled Chicken with Ginseng This is an entrée dish prepared with chicken and ginseng. Cook chicken breast over high heat. Add two big chunks of ginseng and green onions to marry the natural tastes of the ingredients and to tenderize the meat. Ginseng becomes slightly sweet when cooked so it becomes great for those who dislike bitterness. For the sauce, reduce the chicken stock with mustard and honey and drizzle right before serving.

Ginseng Pudding Mix one root of finely ground ginseng (about 35 g) with fresh cream, honey, milk, and gelatin that has been soaked in cold water and dissolved in a double boiler. Pour into a pudding cup and harden in the refrigerator for about an hour; or put the pudding cup in a bowl filled with ice to enjoy right after.

심상을 사로잡는 고운 얼굴의 자태

얼굴을 곱게 꾸미는 화장化粧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본색의 아름다움을 버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톤과 결을 가꾸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의 진정한 의미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설화수의 메이크업 제품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조선 백자를 모티프로 만든 첫상은 인현식 작가 작품으로 KODF 갤러리, 심플한 라인의 화병은 김연지 작가 작품, 미니어처 백자 소반은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모두 조은숙 아트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실란 콤팩트와 컬러팩트 *ShineClassic Powder Compact & Multi Powder Compact*

초순수 파우더가 맑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함과 동시에 매끈한 커버력으로 피부 톤을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해준다. 선조들의 맺돌 방식을 현대화한 입자 제어 기술을 도입, 적용한 미세한 입자로 피부가 한층 더 고운 결로 탄생한다. 특히 이번 실란 베이크업 케이스는 전통적인 자개 공예 기법을 도입해 수공예적 감성을 더했다. 매화 꽃술 모양 위에 자개 패를 얹어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장식해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How to Use 1 콤팩트**: 베이스 메이크업 후 또는 화장을 간단히 고칠 때 퍼프를 이용하여 적당량을 취해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이 가볍게 퍼 비른다. 코 주위 등 굴곡이 있는 부위는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눌러준다. **2 컬러팩트**: 블러셔겸 하일라이터로 브러시로 내용물을 전체적으로 블렌딩하여 볼 부위에 가볍게 터치해준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
Essential Lip Serum Stick

고보습의 동백오일폼플렉스가 함유되어 바르는 동시에 입술 위에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쫄쫄하게 밀착되는 세럼 텍스처의 립세럼 스틱은 입술 사이사이 에 촉촉한 영양감을 선사한다. **How to Use** 낮 시간 동안에는 컬러 립 제품을 바르기 전 퍼 발라 윤기 있는 건강한 베이스를 만들어준다. 입술이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준다. 잠들기 전에는 1호(애플리콧 세럼) 제품을 팩처럼 도톰하게 바른 후 아랫입술, 입꼬리, 윗입술을 지그시 눌러 지압해준다.



유니크한 리빙 오브제로도
훌륭한 사과 모양의 도자 합은
모두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에센셜 컨실러 스틱
Essential Concealer Stick

여러 번 덧발라도 답답하거나 들뜸 없이 매끈하게 표현되는 부드러운 사용감과 자연스러운 커버력. 이 모두를 갖춘 에센셜 컨실러 스틱은 고보습의 동백 오일까지 함유해 촉촉함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How to Use** 가리고 싶은 잡티 부분에 피부 결 따라 쓱쓱 문지른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컨실러 경계면을 포함한 나머지 피부에 퍼펙팅쿠션 또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을 두드려 마무리한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도자의 기형을
모티프로 작가의 감성을 더해
모던하게 표현한 연적과 도자는
한정용 작가 작품.

볼류미네이팅 파운데이션
Voluminating Foundation

설화수의 대표 인티에이징 크림의 공통 성분을 함유하여 스킨케어와
 얼굴에 바른 듯 편안한 사용감으로 처져있는 U라인을 케어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이다. 탄력의 주요 고분자인 눈 옆, 볼 옆, 입 옆을 잇는 U라인을
 탱탱하게 잡아주고 피부에 화사함을 선사한다. **How to Use** 퍼프를
 탄력망에 1~2회 정도 눌러 파운데이션을 묻혀주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퍼프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펴 바른다. 퍼프에 바르고 남은 양은 U라인에
 탄력과 화사함을 더해주기 위해 마무리로 눈 옆, 볼 옆, 입가를 잇는
 라인을 따라 톡톡 툽기듯이 발라준다.



순도 높은 백색의 흙으로 만든
 캔들릿 플라닛츠는 김윤지 작가
 작품으로 청와대 사랑채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실란 메이크업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통과 정통의 수작을 만들어내는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제품 패키지로 올해는
 자개 공예의 고전적인 화려함을 담았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 탁월한 원료 선택과 원료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과학 기술이 집약된 제
 품. 보습 효과가 뛰어난 동백 오일과 홍화 콤플렉스를 함유, 겨울철 건조함으로 거칠어진 입술을 빠
 르게 케어한다. 한 번 바르고 나면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여 입술 본연의 생기와 촉촉함을 채워준다.

에센셜 컨실러 스틱 기존 컨실러들의 두껍고 답답해 보이던 단점을 없애는 동시에 자연스러
 운 커버력과 놀랍기까지 한 촉촉함을 더하며 피부 타입에 상관 없이 효능을 선보인다.

볼류미네이팅 파운데이션 한층 젊어 보이는 얼굴을 위한 메인 키워드로 꼽히는 '탄력'을 스킨
 케어가 아닌 파운데이션에 녹인 획기적인 제품이다. 얇지만 밀착력 높게 피부 톤을 매만져주는 제
 품은 피부의 칙칙한 안색까지 보정해주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S

ShineClassic Makeup ShineClassic Makeup, distributed only one to three times a year as a
 limited-edition product, cherishes the beauty of tradition. The product packages are the proud
 results of Sulwhasoo's collaboration with artists, who make traditional and authentic masterpiec
 es. This year's package has captured the classical glamour of the Korean mother-of-pearl craft.

Essential Lip Serum Stick A product with scientific technology that maximizes the efficacies
 of powerful ingredients. Deep-hydrating camellia oil and safflower complex quickly smooth
 the lips that have become rough with the dryness of winter. It quickly forms a double protective
 barrier to leave lips filled with vitality and hydration.

Essential Concealer Stick Applies lightly and provides natural coverage with amazing hydra
 tion. Ensures the best results regardless of skin type.

Voluminating Foundation An innovative foundation product formulated for "resilience," the
 key to a younger-looking face. This product, which corrects the skin tone with a thin, adherent
 coverage, has an exceptional ability to correct both the yellowness and the redness of the skin.

복잡 미묘한 그러나 그들만의 확고한

India

인도

에디터 권자에 사진 코비스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역은 사람들에게는 깊은 애정의 대상으로 혹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애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규정지를 수 없는 아름다움과 명사화할 수 없는 색채들의 향연으로 가득 찬 나라. 인도는 지금 시간의 경계를 허물며 그 안에서 만들어진 수천 가지 '예술'의 불길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인도 전통의 문양 속에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화려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자이푸르에서 만난 사리를 두른 여인의 모습 속에 컬러의 향연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

인도는 숫자나 기호로도 표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러나 언제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다. 인구 12억인 나라로 아직도 신분을 상하로 나누는 카스트 제도가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빈곤이 거리 곳곳을 메우고 있지만, 인도 사람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분위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선사한다. 그들의 분위기는 건축과 미술 그리고 음악 등 모든 것에 펼쳐져 있다. 마치 예술의 바다처럼. 예술의 바다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엔 인도의 예술, 그중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글로 풀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인도에서 일고 있는 디자인적 성향은 매우 흥미롭다. 전통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그에 따른 배타적 성향의 예술가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젊은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만든 색다른 디자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어쩌면 뒤늦게 디자인 사업에 박차를 가

India is like an organic body so massive that it is beyond numbers or symbols yet is always moving actively. It has a population of 1.2 billion and still has the caste system, classifying people by social status. Poverty fills the streets here and there, but the special aura of the Indian people is unique and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eir aura pervades their architecture, fine arts, and music, like a sea of arts. As it is impossible to take a piece out of the sea of arts, it is very difficult to write about Indian art or design in particular. The latest design trends in India, however, are very interesting. The artists who are antagonistic because of their strong pride in their tradition have begun to open their hearts, and the younger artists who have been trained abroad have begun to create a different design culture coming from a new perspective. What is the unique design of India that began its spurt rather

하고 있는 인도만이 갖고 있는 색다른 디자인은 무엇일까? 바다 건너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질적인 디자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건 젊은 작가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었기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인도스러움이 디자인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요인들이 다양한 색과 문양 그리고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인도스러움을 간직한, 그래서 더욱 오묘한 테마를 갖춘 작품과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다양하게 산출된 디자인들이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면 인도임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대한 모자이크와도 같은 것이다. 인도는 천 년이 넘는 위대한 장인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이러한 장인 정신이 젊은 작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하면서도 현재의 인도 아트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기도 하다. 선택받은 소수의 인도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은 자신들의 국제적인 명성을 이제 막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전통에 빚진 그들이 자신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과거

late, in the early 2000s? As absorbing the foreign cultures created abroad was not acceptable even for the younger artists, the important factor of design was the "Indian feel" that was naturally portrayed, without emphasis. The factor extended to various colors, patterns, and styles. In sum, the younger artists are creating artworks and designs that clearly preserve the Indian character with rather profound and mysterious themes. India is a country with an over-a-thousand-year history of great masters. The spirit of mastership gives infinite inspiration to the younger artists and forms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Indian art. A few of the gifted creative minds are just starting to gain global reputation, but it is clear that they wish to introduce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masters who have inspired them as they owe a lot to their tradition. Having grown up in the midst of a unique



천 년이 넘는 장인의 역사가 말해주듯 인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세계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현재의 인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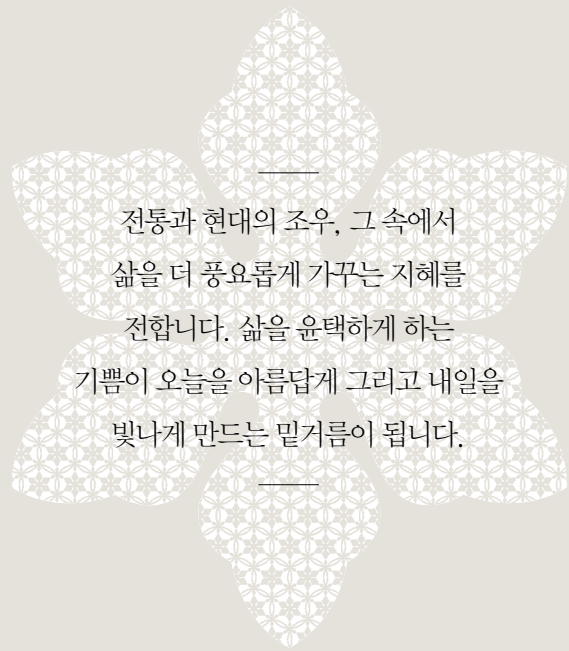
장인들의 업적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그리고 전통 미술을 보고 자란 작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것으로 인도가 경제는 물론 아트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기를 들 수도 없다.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열리고 유수의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인도에 지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인구만큼이나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확고한 생각들을 작품으로 구현한다. 디자인이나 예술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 또한 인도 예술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다. 인도에서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했던 경험을 되새김질하자면 각 도시마다 색깔이 다르고 그에 따른 울림도 다르다. 과감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 숨이 턱 하고 막히다가도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축물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동시에 환희를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인도다. S

culture that is unlike any other in the world, and in the midst of festivals and traditional arts that can be enjoyed by anyone, the artists all agree with one another. This is why no one can object to the view that India would one day become the center of arts as well as the economy in the world. There are world-class art fairs and many leading design agencies that are already opening offices in India, and artists with as many different thoughts and ideas as the population are turning their firm beliefs into artworks every day.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understand Indian art is to see India as it is, beyond the boundaries of design and art. Recalling the time that I backpacked in India for about a month, I found that each city had different colors and echoes. Some choked me with a feast of bold colors while others made me feel the emptiness and joy of life at the same time in a simple architectural structure.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의 힘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윤의 절정을 이룬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이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차원이 다른 스킨케어의 시작으로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의 절정을 경험하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
이
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물 같은 순간

패키징 & 래핑 디자이너 정태임

그저 종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 국내에 처음으로 패키징&래핑 디자인의 세계를 연 정태임 원장. 종이를 만지고 자르고 접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에게 패키징&래핑 노하우를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받는 이를 생각하는 정성스런 마음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더불어 무탈하게 잘 살아낸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한다면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여보길 권한다. 상대가 좋아하거나 필요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에도 신경 쓴다면 선물의 가치를 더하고 주는 이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상자, 종이, 끈이나 리본 등을 잘 활용하면 어떤 선물이든 더욱 특별해진다. 패키징&래핑 전문가를 양성하는 스쿨인터페이퍼 정태임 원장은 국내에 패키징&래핑을 소개하고 여러 작업을 전개한 최초의 디자이너다. 그는 종이 지닌 본연의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패키징과 래핑은 표현하는 모든 것에 감성과 디자인 그리고 휴머니즘을 입히는 작업이에요. 개인이 하는 선물이든 기업의 제품이든 상대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듯 정성을 담아야 하지요. 정성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정성을 제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일이 바로 패키징과 래핑입니다.”

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출

정태임 원장이 현재 몸담고 있는 스쿨인터페이퍼는 디자인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해 종이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테마를 다루는 패키징&래핑 전문 스쿨이다. 이곳에서 정 원장은 패키지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여러 형태의 포장법과 지기紙器 구조, 디스플레이 이론과 실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전달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간 디스플레이나 제품 패키지 작업 등도 진행한다.

“최근 종이로 공간 디스플레이를 하는 작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박람회 가보면 나무, 유리, 금속 등의 소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종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종이는 설치가 쉽고 철수하기 편리한 것이 장점이에요. 유리, 금속 등은 사용하고 난 후에 산업폐기물이 되지만 종이는 그렇지 않죠. 또 종이는 채색이나 프린트가 자유로워 원하는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시



대의 변화에 따라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인쇄물은 줄어들었지만, 종이를 통해 구현하는 분야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정 원장이 후학 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까다로운 새 작업들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작업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패키지&래핑 전문가 과정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의 여성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여성 앞에 ‘꿈 없이 사는’이라는 수식어가 빠졌다. 정 원장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좋아하는 일을 찾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인생의 전환점, 종이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다

“20여년 전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제 직업은 VMD(Visual Merchandiser)였어요. 당시는 VMD라고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했던 때라 데커레이터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러던 중 남편 직장 문제로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딱 1년만 쉬고 다시 VMD 쪽 일을 하려고 계획했지요. 1년 동안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편집숍을 많이 드나들었어요. 편집숍에는 종이, 스테이셔너리, 향초 등 여자들이 한 번 빠져버리면 헤어 나오지 못할 것들이 넘쳐났죠. 그때 ‘이 일을 하고 싶다, 책상 위를 꾸미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 내가 집중할 수 일이구나’ 깨달았어요.”

정 원장은 그 길로 오사가 디지털 디자인스쿨에 다니며 래핑을 배웠다. 패키지 디자인과 말 그대로 포장만 하는 두 가지 작업에서 정 원장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의 조합, 다시 말해서 디자인을 해서 박스를 만들고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이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유명 전문학원인 휴먼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내에 플로리스트 개념을 처음 도입한 소호앤노호 대표를 만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바로 수락해 처음으로 국내 래핑 스쿨을 개강했다. 이후에는 까사스쿨을 론칭하면서 패키지&래핑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삶의 그레이드

가 올라가면서 패키징과 래핑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용물이 좋으면 겉포장은 어떻게 상관없던 시대에서 속과 같이 모두 아름답길 바라는 수요는 특수지, 수입지 등 좋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선물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

정태임 원장은 최근 한지에 폭 빠져 있다. 한지라고 해서 울긋불긋하거나 예스러운 한지를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한지 특유의 질감이 잔잔히 묻어나는 고운 백색의 한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종이로 만드는 모든 것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요즘에는 품질이 좋은 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소 원색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오방색이 아닌 은은한 풀빛이라든지 스님들의 적삼 등에서 볼 수 있는 뉴트럴 컬러가 편안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색과 일본 색은 거의 같아요. 일본의 젠(Zen)은

한자의 선禪과 같은 뜻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와시和紙라는 일본 전통 종이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요. 그러나 우리의 한지는 매우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저는 그래서 늘 한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정 원장이 한지로 만든 꽃과 프레임은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공간 한편에 놓아도 어색함 없이 모던하고 아름답다. 정 원장에게 연말 선물을 더욱 빛나게 해줄 감각적인 포장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봤다.

“집에 모여 간단히 포트럭 파티를 하거나 레지던스 호텔에서 소규모 파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때 먹거리 선물을 가져간다면 보자기를 권하고 싶어요. 친환경 포장 용기나 왕골 바구니에 담아 보자기로 감싸 매듭을 지어주면 근사한 포장이 됩니다. 와인을 쌀 때도 유용하고요. 저는 리본을 좋아하고 자주 애용하지만 리본을 예쁘게 묶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럴 때면 과감하게 리본을 포기하고, 패턴이 예쁜 포장지로 자연스럽게 감싼 후 뜨개질하고 남은 털실이나 끈을 이용해

뭉어보세요. 또 스탬프 몇 개를 준비해두었다가 두꺼운 종이에 찍어서 모양대로 오린 후 한쪽 끝을 송곳으로 뚫어 끈을 연결해 붙이면 굳이 포장 코너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감각적인 포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포장지와 리본을 매칭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을 노하우가 있다. 포장지의 패턴이나 일러스트가 강렬할 때는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가진 리본 끈이 어울리고, 잔잔하거나 단색의 차분한 포장지에는 보색 컬러의 리본 끈을 사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상자를 이용할 때도 미묘한 컬러라면 예쁜 패턴의 포장지로 겹을 싸서 사용하고, 스탬프를 찍어 패턴을 만들어보는 것도 쉽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드라이플라워를 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줄기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꾸미고 평소 인상 깊게 생각했던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적어 넣어도 멋진 포장이 완성된다.

“일본에 가기 전 저에게 선물은 늘 과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날 현지 친구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들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파티 내내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빨리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풀어보니 자수가 놓인 핸드타월 하나, 양 증맞은 장식품 등 소소한 것이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제게 선물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 그래서 나에게도 선물이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왕자>

의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라는 글귀처럼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종이를 자르고 꺾고 붙이는 시간

정태임 원장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은 종이를 만지는 순간이다. 패키징&래핑 작업은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하는 작업과 샘플을 만드는 수작업, 결과물을 설치하는 작업 등의 프로세스가 있다. 일련의 작업 중에서 정 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손으로 종이를 자르고 꺾고 붙이는 시간이다. 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종이를 만지며 사는 것이 앞으로의 개인적인 소망이다. 누군가 지금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다면 90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배들이 이 길을 가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 유명하지는 않아도 나이 많은 선생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며 힘을 내고 살아갈 자그마한 동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또 정 원장은 스쿨인더페이퍼에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종이에서부터 스테이셔너리, 향 제품 등 스쿨인더페이퍼만의 감성을 담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책상 위에 놓일 정태임 원장의 손맛 나는 작품이 기다려진다. S



수저에 담긴 인문人文

먹는 일을 행하기 위한 도구인 '수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문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람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식문화의 근간이 되는 생활용품인 수저에는 한국의 전통과 시대적 풍취, 한국인의 정서가 오롯이 담겼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참고도서 <우리문화박물관>(디자인하우스)

먹는 일에 도구가 필요하게 된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사 도구로 사용되는 숟가락. 가장 보편적인 도구이면서도 각 나라와 시대마다 목적은 같지만 형태는 물론 쓰임의 경중輕重이나 부여된 의미가 조금씩 다른 흥미로운 생활용품이다.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항상 함께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풍속이다. 젓가락 문화는 바로 '짹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젓가락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젓가락이 지닌 짹의 문화를 한층 더 완성한 것이 수저 문화이다. 우리는 수저가 모두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의 음식 자체가 국물과 건더기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집어 먹고 국물은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수저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특히 미끄러운 쇠젓가락을 사용했기에, 젓가락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젓가락 사용이 두뇌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한국인의 섬세함과 집중력의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고급 문화로 여긴다. 사실 수저 문화는 중국과 일본에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3국 중에서 숟가락을 가장 먼저 사용한 중국에서는 명나라 이후 숟가락 사용이 쇠퇴하고 젓가락 중심의 음식 문

화가 자리 잡았다. 일본도 전적으로 젓가락에 의존한다. 국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들고 마신다. 중국과 일본 모두 숟가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식사할 때 항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풍속과 정서가 식탁 위에 놓인다

우리나라에서 숟가락은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됐고, 젓가락은 삼국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는 마른 음식과 국물 음식을 동시에 먹는 우리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나라에나 식사 예절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올바른 식습관과 기초 예절을 배우게 되는 것. 이때 수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웃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자신의 수저를 들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절제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인성적인 부분까지 저절로 몸에 배게 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과 먹는 속도를 적당히 맞추는 것',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지 않는 일' 등 우리 밥상에서 수저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적색 손잡이 숟가락부터 시계 방향 적색 손잡이 숟가락 해브빈서울, 미색과 진한 초록색 나무 티스푼 KCDF갤러리, 초록색 젓가락 나옴크라프트, 옥색과 보라색 젓가락 해브빈서울, 마블링 회색 젓가락 다이닝오브제, 군청색 젓가락 KCDF갤러리, 접시 오브제는 모두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새 오브제부터 시계 방향 새 오브제는 아원공방, 로즈골드 손가락은 아름지기, 이파리 장식의 티스푼 KCDF갤러리, 블랙 접시 보고재, 검은빛 손가락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구부러진 손가락, 실버 티스푼, 손가락과 젓가락 세트는 모두 보고재, 나뭇가지 티스푼 아원공방.

가장 친숙한 도구이자 우리만의 식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도구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식탁은 사회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 혼자 식사하는 관습이 전해져 내려왔다면 이러한 식사 예절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식탁 위에 담겨 있기에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 그렇게 밥상 위에서 올바른 식사 예절을 습득한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일 수 있다.

건강과 복을 바라는 마음을 새기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수저에 '수壽', '복福', '희壽' 등의 글자를 문양으로 새겨 사용했다. 또 무병장수를 뜻하는 십장생 그림을 담기도 했다. 오복(五福) 중 하나인 장수(長壽)는 복 중의 복으로 불리는데, 부귀(富貴)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반면, 장수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고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으뜸으로 여겼다. 그래서 일상용품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를 새겨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물론 수저 문양에도 빠질 리가 없었다. 수복이 담긴 수저를 사용해 음식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동시에 수와 복을 먹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렇듯 수저는 귀한 것으로 여겨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통이나 집을 만들어 간수했다. 주로 대나무의 단면이나 속을 판 토막을 이용해 간단한 수저통을 만들었다. 또는 천을 이용해 수저집을 만들어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 때나 나들이를 갈 때 수저를 싸가지고 다녔다.

여인들은 고운 비단 천에 학, 소나무, 바위와 같은 십장생 무늬, 수복강녕, 길상(吉祥) 문자, 꽃 등을 수놓아 수저집을 만들어 안방에 걸어두기도 했다. 수저집은 시집가는 새색시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혼수 품목이기도 했다. 우리 풍습 중에 시댁에 결혼 예단으로 은수저를 보내

는 것이 있는데, 이때 손수 만든 수저집에 정갈하게 포장하여 시어른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했다. 은은 독이 묻으면 검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은수저를 보내는 것은 건강을 선물한다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부부가 쓸 수저집에는 원앙, 물오리, 봉황 등을 쌍으로 수놓아 부부의 금실을 기원하기도 했다.

수저에 담긴 의미는 그대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히다

이제는 전통과 현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많은 공예가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수성을 더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전통을 고집하던 장인들도 전통 공예품에 현대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정식 집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낯수저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고 진화했다. 더불어 서양식 커피리더도 함께 제작되어 식탁 위에서 모던하고 묵직한 맛을 내보인다.

너무 흔하게 존재하기에 미처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고 그간 평가절하됐던 수저를 재발견하지는 움직임도 생겼다. 지난해 말에는 수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렸는데, 수저를 도구적, 예술적 그리고 장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국내외 3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 전시였다.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젓가락 전문 갤러리 '저집'에 들르면 젓가락은 물론 손가락 그리고 수저를 정갈하게 정돈해주는 수저받침 등의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에 전통적인 옷칠과 나전을 입혀 건강까지 오롯이 담았다. 한국적인 정서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수저는 귀한 분을 위한 선물로도 좋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저에도 관심을 기울여보기 바란다.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만들어진 수저가 밥상 위에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도울 것이다. S

절망의 시대, 희망으로 피어난 예술가

내년에 탄생 100주기를 맞는 이중섭(1916~56)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림 재주를 가졌고, 당시로서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해외 유학에 외국인 여성과의 사랑과 결혼, 가족과의 생이별, 극심한 가난과 고독한 죽음 등 근대 화가의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진 예술가다.

에디터 윤연숙 글 이선영(미술평론가)

희망으로 근대를 살아낸 화가

이중섭은 사후에 재평가되어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유통되며, 그렇기 때문에 위작 시비도 끊이지 않는 '국민 화가'의 대열에 올라가면서 '천재 화가'의 드라마틱한 사연으로 마무리되는 작가다. 이것은 이중섭에 한정된 특수성이기보다는 미술이 사회제도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라는 시기의 보편적 특징 때문이다. 시대가 그런 인물과 작품을 탄생시켰고, 역으로 그런 인물과 작품은 그 시대를 구체화한다. 한 시대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추적해보면, 파란만장한 시대와 예술가로서의 길이 만나고 겹치고 틀어지는 보편적 과정을 피해 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민족과 자아가 힘차게 투사된 대표적 도상(소)의 확립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한국인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와 전쟁 등 위기에 처했던 민족과 가족, 자아라는 주제들 중에서 가족과 자아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위기다. 민족문제의 경우에도 분단의 모순은 우리 사회를 늘 옥죄어왔으며, 심지어는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함께 세계 평화마저 위협받는 상황이기도 그렇다.

정보혁명으로 더욱 빨라진 시간 감각 때문에 현재와 멀리 떨어진 시절의 예술가라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이 가진 문제의식은 여전히 있다. 그를 지나간 시대의 예술가라고만 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관념은 적어도 예술이 한때나마 치열하게 시대적이었음을 말한다. 이중섭은 다양한 심급의 주체들에게 가해진 고난보다는 희망에 치중했다. 그러나 절절한 희망사항은 그가 직면했던 고난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식민 지배와 전쟁이라는 파란 많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궁지에 몰린 예술은 저주받은 현실에 대한 강력한 보상 기제로, 바람직한 삶의 양식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이 투사되는 효과적인, 또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다. 이중섭의 작품에서 위기에 처한 자아, 가족, 민족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곳은 만물이 조화롭게 엮여 있고 상응하는 자연으로 나타난다. 올해 초 현대화랑에서 열린 <이중섭의 사랑, 가족>전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편지, 엽서와 은지 등에 새겨 넣은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 공개된 70여 점의 작품과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 소장가가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 기증한 은지화銀紙畫들이다.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한 은지화는 이미 그가 오산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할 당시, 먹으로 검게



<흰 소> 이중섭, 나무판에 유채, 30x41.7cm, 홍익대학교박물관, 1954



〈사귀포의 환상〉 이중섭, 나무판에 유채, 56x92cm, 호암미술관, 1951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 종이에 유채, 29.5x64.5cm, 1954

만든 한지를 철필로 긁어 하얀 바탕을 드러내곤 했던 스크래치 기법(그라타주, Grattage)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중섭의 고향은 평안남도였지만 6.25 전쟁으로 원산에서 부산으로, 제주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거듭되는 피난 생활 속 경제적 빈곤은 이전에 했던 실험을 담배 포장지라는 버려진 재료에 적용하게 했다. 이는 곧장 가족과 이별한 상황을 표현하는 절절한 형식이 되었다.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은지화는 나중에 대작으로 완성될 수도 있는 임시방편의 밑그림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지만, 40세로 마감한 짧은 생애에는 밑그림이 완성작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화로 그려진 소로 대표되는 작품 목록에서 부차적인 위치를 가진 소품이나 자료이기보다 그 자체 자족적인 소우주로 빛난다. 그가 감당했던 어두운 현실을 인식할수록 은지화는 더욱 빛난다. 길이가 15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은지화는 가족과의 행복한 재회라는 강력한 갈망이 투사된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담뱃갑 속 방수 처리된 포장지인 은박지를 펴서 끝이 뾰족한 도구로 드로잉하고 그 위에 담뱃진이나 물감을 칠한 후 마르기 전에 닦으면 음각된 선에 물감이 드러나 독특한 효과를 자아낸다.

전쟁 중 빈곤의 시기에 캔버스와 물감을 대신한 은지는 곧잘 쓰레기를 예술로 변화시키곤 했던 현대미술의 흐름과 함께한다. 담배나 초콜릿

등을 싸는 포장재인 은지는 새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접고 뜯어진 선들이 자연스럽게 구성에 포함된다. 6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공개된 작품 〈신문 보는 사람들〉과 〈낙원〉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이미지와 동양적 이상향에 등장하는 복숭아나무가 있는 풍경[桃源境]이 담겨 있다. 뉴욕이라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는 이중섭의 한국적 이상향을 높이 평가했지만, 한국은 달랐다. 1955년 서울 미도파화랑에서 연 개인전에 출품한 은지화 일부가 춘화 취급을 받으며 철거된 사건이 있었다. 당국에 의해 철거된 것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이 합체를 이루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풍경이었다. 인간이나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 만물이 연결된다는 사고는 동서양의 종교나 현대의 생태주의와도 조응하지만, 우리 사회는 만물 간의 합체를 외설로 받아들이며 그의 작품을 제대로 수용할 만한 문화예술적 역량이 부족했다.

천진한 아이와 여인을 통해 진한 가족애를 담다

전쟁을 비롯하여 현대사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단절이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단절되기 이전의 총체적 상이 담겨 있는데, 그 세계의 주인공은 천진한 아이였다. 아이들을 그를 둘러싼 모든 것과 닿아 있고 그

것들과 소통한다. 작가의 일대기를 염두에 둔다면, 그 아이들은 우선 일본에 가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른 역시 아이로 표현된 작품도 있다. 인생의 유토피아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시절,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실낙원 아닌 낙원에 있을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전형적인 어른 아이는 바로 예술가가 아닐까? 그들은 그림 속 유토피아에서 영원히 노닌다. 그리운 아이들과 여인이 있는 장면은 진한 가족애를 담고 있다. 가족은 소우주에 투사된 유토피아의 공간이다. 그의 유작 중에는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엽서와 더불어 편지에 글과 함께 담은 그림들이 많고, 때로 그림만 담은 편지도 있다. 멀리 떨어진 그리운 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희망사항으로 가득하다. 이중섭의 은지화에는 가족을 그리는 화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작품도 있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대상과 그리는 주체는 하나가 된다.

이중섭 하면 대표 이미지로 떠오르는 소 역시 가족들과 등장하면 희망의 땅으로 함께 가는 정겨운 존재가 된다. 소를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는지 소도독으로 물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그는 소를 많이 그렸다. 붉은 노을 앞에서 울부짖는 황소에는 고통받는 자아와 민족의 얼굴이 겹쳐진다. 순진한 눈망울을 하고 있으면서도 울퉁불퉁 힘이 있는 소는 원초적 자연력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작품에서는 그러한 자연이 고난에 처해지거나 고난을 극복한다. 작품 〈길 떠나는 가족〉에도 나타나

듯이 때로는 인간들을 고통 없는 땅으로 인도한다. 소는 사막 같은 현실을 횡단하여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도달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로 다가온다. 낙원에서도 소와 인간은 소통한다. 이중섭이 꿈꾼 '고통 없는 땅'이란 자연과 하나 되는 역사 이전의 원초적 세계이다.

자연의 극복을 바탕으로 진보한 현대에,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는 상상으로만 가능하며 그 상상은 그림 속에 오롯이 구현되었다. 천진한 아이, 사랑하는 여인, 가족, 소...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연은 유토피아의 기호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고 그림에서나 가능했을 뿐이다. 그의 작품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미지의 섬이나 갖가지 식물로 둘러싸인 정원 같은 유토피아의 지형학이 내재하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종이 소통하고 결합한다. 작품 속 지천에 널린 물고기와 과일은 현재의 결핍과 대조되는 풍요에의 희망을 표현한다. 파스한 봄, 생명이 약동하는 여름, 풍부한 결실이 있는 가을의 이미지다. 원초적 시공간으로 떠나려는 현대의 화가에게 야수주의나 표현주의는 적절한 언어였을 것이다. 그것은 서구 사조의 피상적인 모방이 아니라, 비슷한 갈망이 투사된 결과다. 이 세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담은 예술은 격변의 시기를 살아야 했던 예술가에게는 더욱 진실이었다. 5



보이는 것 저 너머에

사 진 가 김 용 호

물속에 누워 연임을 찍은 <피안>이라는 작품과 머리에 에디슨 전구를 단 도자 조명 <모던 보이>로 잘 알려진 사진가 김용호, 커머셜과 파인아트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에는 머릿속 수많은 생각을 기록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로 탄생시키는 필기도구의 힘이 숨어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언제부터인가 사진가 김용호의 손에는 카메라보다 노트와 필기구가 들려 있을 때가 더 많다. 손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자신을 위해 강렬한 붉은색 커버의 노트 수백 권을 만들었다. 노트에는 직접 지은 시도 들어 있고, 폴라로이드 필름이 붙어 있기도 하며, 그때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 프로젝트 미팅 내용 등 사진가 김용호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노트 표지에 프로젝트 명을 쓰고 항상 만년필을 지참하고 다녔어요. 프로젝트 하나에 노트 한 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만년필보다 노트에 탄력적인 줄을 달아 연필을 묶어 다닌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만년필과 붓이다. 그렇다 보니 지인들에게 만년필과 붓을 선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붓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것인데, 사진 찍는 후배에게 받은 선물이예요. 촬영차 무형문화재 붓 장인을 찾았던 후배가 받은 선물로, 제게 더 쓸모 있고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다시 선물했죠.”

노트에 필기할 때는 주로 만년필과 연필을 사용하지만 선물할 때는 붓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진가 김용호는 와인 한 병, 책 한 권 선물할 때도 붓 또는 붓펜으로 글을 써서 전한다. 그의 붓글씨 솜씨는 유년 시절 잠깐 배웠던 서예에서 시작돼 전시회나 옛 문인들의 글씨를 많이

섭렵한 데서 유래한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메모를 실 새 없이 한다 해서 누구나 특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 사진가 김용호의 감각적인 작업 뒤에는 ‘형식은 본질의 표면이며, 진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라는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호기심이 많은 그는 ‘표면 뒤에 무엇이 있는가, 대상을 남들과 달리 보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민하고, 규정돼 있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는 작업을 계속 시도했다. 책, 여행, 전시회, 공예, 패션 등 다양한 것에서 영감을 받는 그는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문득 퍼즐 맞추듯 착착 제자리를 찾고 빈 공간을 메울 때 희열을 느낀다. 도자기로 만든 조명 작품 <모던 보이>도 그러했다. “모던보이는 모더니스트의 애칭이에요. 열악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모더니스트죠. <모던 보이>는 모더니스트가 가진 스스로 빛나는 존재 의미를 형상화해 머리에 전구를 달았어요.”

사진가 김용호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모던 보이>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태양열로 작동하는 <모던 보이> 조명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흙 같은 어둠을 밝혀줄 빛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모던 보이>의 정신을 함께 전달하며, 그들에게도 생각을 키우고 꿈을 품을 기회가 닿기를 소망한다. S

차 향기 가득한 운치의 공간

고운 향기 피어오르는 차 한 잔으로 겨울날 시렸던 몸과 마음을 함께 녹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곁에 두고 보기만 해도 행복지수가 높아질 듯. 찻잔 입구가 꽃잎형태로 만들어진 2인 다기 세트는 아리아 워크룸, 해브빈서울.



독특한 질감의 은 소재로 완벽한 형태감이 주는 미가 흐른다. 곡선의 유연함이 돋보이는 다기는 김영옥 작가 작품으로 가나아트센터.



동소재와 옷칠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배색컬러의 고급스러움이 빛나는 찻잔 세트는 김윤진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입김으로 뽀뽀 언 손을 녹여보지만 쉽사리 겨울의 냉기는 손과 몸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야속하게 느껴질 즈음 평평 내리는 눈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렇듯 무심했던 회색빛 겨울의 차가운 풍경이 따뜻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더한다면 또 어떨까요? 단아한 다기에 차물을 담아 다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좋을 것입니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일종의 식음의 역할 외에 심신의 안정과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해주기에 연말의 부산함을 가라앉힐 최고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전통적인 느낌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서도 단아한 우리의 맛을 살린 찻잔이나 접시, 소반 등 키친 아이템에서 스탠드, 방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공간에 맛을 살려보세요. 획일적 공간에 새로운 품격과 개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볼에는 따뜻한 차를 담고 짙은 색감의 뚜껑에는 다식을 담아 대접한다. 이세웅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 갤러리.



심플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감이 돋보이는 매트한 질감의 티팟과 밀크저그는 준도공판매(<http://blog.naver.com/4820pjs>)



세라믹소재로 만들어져 유니크함을 더하는 티 인퓨저와 수제 도자기 빈티지 머그(600ml)는 현상화 작가 작품으로 다이닝 오브제



마치 물결이 번지듯 독특한 색감과 금색 손잡이가 돋보이는 차 거름망 세트는 이상욱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느티나무를 직접 깎아 만들어 나무 결이 주는 무늬와 고유의 색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찻잔 받침 5세트는 김용희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질감에서 오는 독특함이 눈길을 끄는 모던한 형태의 티팟, 잔과 받침 2개 세트는 300 작품으로 서울 번드.



줄무늬로 포인트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은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은손잡이 차거름망은 인현식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티백을 넣고 우릴 수 있는 도구 하나에도 작가의 감성이 녹아 있다. 원형 도자기 티백 인퓨저는 현상화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다과를 먹을 때 쓰이는 대나무 픽 10개 세트는 다이닝 오브제, 도자 오브제는 현상화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정성이 담긴 선물은 곧 마음이어라

늘 곁에 있어도 고마움을 표현 못 했다면 이번 연말이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문양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조이질 기법으로 만든 문진은 황금 컬러와 함께 한층 귀해 보인다. 이기하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손에 부드럽게 잡히는 그림감이 좋은 손거울로, 나전으로 제작된 나비 문양 자개가 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임을 선사한다. 옷칠 손거울은 나은크라프트.



비단에서 손으로 놓은 수가 화려한 듯 정갈한 손맛을 느끼게 한다. 부피가 작은 선물 포장용으로도 좋다. 정은진 작가 작품.

선물贈物, 남에게 어떤 물건을 선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저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감동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선물은 고를 때부터 일렁이는 설렘과 바람이 받는 이에 게 고스란히 전해져야 서로의 돈독한 정을 느끼게 하지요.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 한 해를 잘 보내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겸손은 물론 지성까지 겸비한 센스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전통 공예 작가들이 손으로 정성스레 만든 작품 같은 선물을 추천합니다. 전통 공예 기법으로 만든 브로치, 금속 공예가의 하나뿐인 컵 링크스, 자개 장식으로 마감한 작은 수납함 등, 여기에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지 대신 빛깔 고운 선물용 주머니나 보자기에 담아 선물해보세요. 연말에 전해진 마음의 선물들은 이듬해까지 환한 웃음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전통의 떡살 문양이 실생활 속 리빙 제품으로 다소곳이 피어났다. 치분한 컬러감의 떡살문 비누는 6개가 한 세트로 리움갤러리.



전통의 자개 문양과 모던한 도형 그리고 은은한 색감이 부모님을 위한 센스 있는 선물로 제격이다. 휴대전화 케이스는 진주셀.



손잡이 따라 살짝 잡힌 주름마저 예지 있게 돋보인다. 화이트&블랙 컬러의 심플함으로 유아함이 감도는 그림백은 ME.MORI.



조각보 패턴이 주는 조형미가 황금빛 컬러와 만나 기품이 배가되었다. 연말 파티나 모임에 잘 어울리는 패턴의 넥타이는 www.ytli.co.kr에서 판매.



마치 하늘을 나는 새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 듯 유니크한 브로치다. 나일론, PVC, 황동 소재로 제작된 브로치는 최정선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작은 펜이라 할지라도 명장의 솜씨와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은 소재로 수작업된 당초문 펜은 오혜균 명장 작품으로 영인의 일.



단청 문양 디퓨저로,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할 오너먼트나 책상 위 향기를 불러 일으켜 줄 소품으로 손색없다. 석고 소재 단청문 디퓨저 해브빈서울.



무채색 감의 옷과 함께 스타일링하면 좋을 배색 팔찌는 모시 소재로, 팔뚝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조하나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나무와 옷칠 나전함은 액세서리를 담아 선물하거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오브제를 넣은 함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은크라프트.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아이들

거리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캐럴, 반짝반짝 도시를 수놓는 색색의 조명,
거대한 크기의 크리스마스트리 등 연말이 되면 세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채워진다.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에도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기운이 충만하다.

에디터 윤연숙

신나는 캐럴만큼이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크리스마스. 특히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일 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일 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 밤에는 몰래 선물을 갖다 놓느라 즐겁고, 다음 날 아침에는 선물을 풀어보느라 즐거운 하루가 이어진다. 동화 속 풍경이 펼쳐지는 유럽의 마을에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한다.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하고 12월이 되면 집 안 인테리어를 단장하며, 파티 요리 메뉴를 정한다. 선물은 물론 카드 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크리스마스이브부터 휴일이라 해외로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트리 아래에 선물을 가득 쌓아놓고, 청어와 연어 요리, 칠면조 오븐구이 같은 전통 음식을 크리스마스 뷔페로 차려 친지와 어울려 먹는다. 특히 집집마다 창가에는 촛불을 켜놓는다. 유독 겨울이 춥고 캄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보통 친지나 이웃 어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큰 자루에 선물을 가득 들고 온다. 스웨덴의 국민화가 칼 라르손(Carl Larsson)의 따뜻한 수채화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실내 풍경이 제법 등장한다. 스카디나비아 식 디자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칼 라르손은 스웨덴 문화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주인공으로서, 부인 카린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라이

프스타일과 거주 양식을 선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 안팎을 묘사하고 그 위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담긴 아늑한 방 안의 아이들이 선물을 풀어보는 모습을 그린 〈Christmas Morning〉은 보는 이에게 행복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크리스마스 아침 풍경을 그린 오스트리아의 화가 페르디난트 게오르그 발트뮐러(Ferdinand Georg Waldmüller)는 원래 풍경화가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 외에도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담긴 그림을 즐겨 그렸다. 그가 1844년에 남긴 〈Christmas Morning〉을 보면 요란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성탄절 아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발트뮐러의 잔잔한 그림과 달리 사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온 도시가 들쭉이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11월 중순에서 12월 25일까지 열린다. 700년 전통의 빈 크리스마스 마켓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1296년 알브레히트 황제가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마켓은 처음에는 작은 시장이었다. 그 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가게들이 늘어나 대규모 마켓으로 발전했다.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 등 유명 관광 명소에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비롯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또 미니 기차와 회전목마 같은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 쿠키, 양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아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곳이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등 가족이 모두 한 침대에 누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정겨운 그림은 미국의 여류화가 애너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Anna Mary Robertson Moses)의 〈Waiting for Christmas〉라는 작품이다. '모지스 할머니(Grandma Moses)'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그림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카드와 연하장의 표지를 장식한다. 67세부터 그림을 시작해 80세 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녀의 그림에는 어린이의 순수함과 친진난만함이 가득 담겨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전한다. 그 때문인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올해에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집 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여도 좋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지인들을 초대해 어울려도 좋겠다. 아이가 있는 집은 산타클로스 이벤트를 준비해도 좋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보길 바란다. S

1 <Christmas Morning>, Carl Larsson, 1894
2 <Waiting for Christmas>, Grandma Moses,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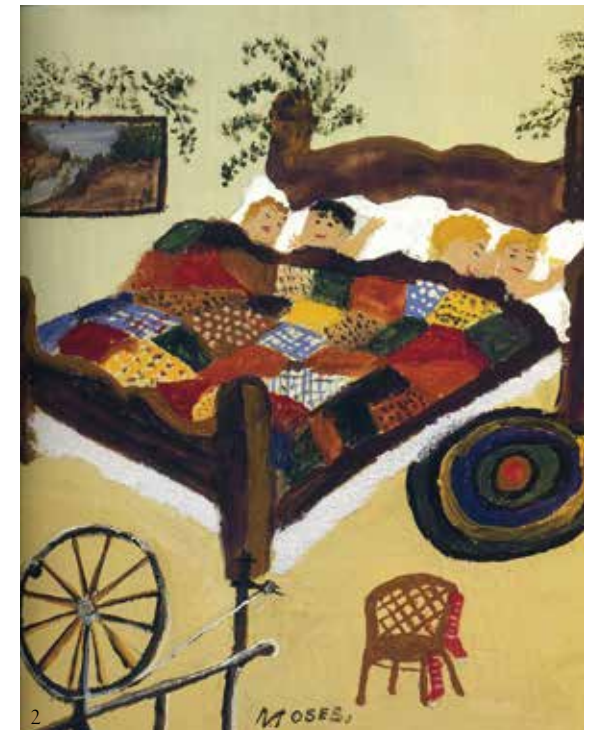


유니버설발레단 -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12월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공연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환상과 낭만을 그린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다.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이 쓴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의 이야기에 '관현악의 대가' 차이콥스키(1840~93)가 곡을 붙이고 고전 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피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안무를 짰 작품이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리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과거 나라를 여행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는 가족 관객의 호기심을 끈다. 여기에 '사랑 요정의 춤', '갈대 피리의 춤', '꽃의 왈츠' 등 클래식을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친숙한 명곡들도 즐비하다. 올해로 29년째 연말이면 이 작품을 공연하는 유니버설발레단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화려한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마법사 드로셀마이어 역의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실제 마술도 펼쳐 보인다. 선화예술학교와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에서 선발된 40여



명의 학생 무용수들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가족 발레 분위기를 더한다.
일시 2015년 12월 18~30일 평일 오후 4시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 일요일&12월 25일 오후 2시 6시
장소 유니버시아트센터
관람요금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문의 070-7124-1737



아름다운 전통에 새롭고도 젊은 에너지를 불어 넣다

전통과 현대의 대화, 예술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맥락을 열어가는 <설화문화전>의 아름다운 행보, 올해도 그 가치와 진중한 의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통'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오래된 옛 것을 가리키는, 계통을 이어 받아 전하는 명사적 의미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존재케 하는 교각이자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진중한 근원지이기도 하다.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교각의 역할, 여기에서 '설화문화전'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모던함을 담고 있는 설화문화전은 2006년 <설화문화의 밤>에서부터 시작된다. 8인의 작가들이 가장 한국적인 색을 이야기한 '한국의 아름다운 색'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한국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6인 작가들이 한국의 문양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이

2009

百美

전시장소 복합문화공간 King, 빈티지 홀
디렉터 정구호

가식적이고 인공적인 것을 멀리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의 성품과 어우러지는 색, 백, 2009년 설화문화전은 '백색白色的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였다. 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 8인과 현대작가 8인 그리고 한국의 현대미술을 이끌어갈 촉망 받는 신진작가 8인 등 총 24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2010

수작-간절한 만남

전시장소 호림아트센터 신사분관 JNB 갤러리
디렉터 마영범

'수작手作'을 주제로 총 14인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특별 찬조전시를 포함 총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수작은 빼어난 작품을 예술가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는 행위로서 수작手作, 그 결과물이 미의 완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수작秀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다는 뜻에서 수작邂逅 등 중의적 의미를 품고 있다.



2011

가설假設의 정원庭園

전시장소 비온드뮤지엄
디렉터 김백선

가설의 정원'을 주제로 전통 장인, 소금 장인, 현대 작가 등 11인의 예술가가 참여하였다. '가설의 정원'이란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라고 의미로 문화 생태정원을 상징한다. 이 전시는 소재와 그 작품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야기 했다. 그 후,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설화문화전은 전통을 향한 젊은 작가들의 깊은 애정이 담긴 새로운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통 공예와 현대미술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설화수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건축, 미디어아트, SNS, 사운드, 도예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전시 <스킨 닉스(SKIN=NIKS)>(2014)는 오감을 상징하는 전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었고, 세대간의 공감과 교류를 이끌어냈다.

2015년 설화문화전은 본래의 가교의 역할에 충실하되, 설화수만의 의미 있는 소통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설화 '백일홍 이야기'를 전시 소재로 채택하고 <설화(說話):Once upon a time-백일홍 이야기>를 주제로 보다 많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新문화적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갤러리의 특이한 구조를 활용한 작품 설치를 통해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을 감상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백일홍 설화에 의미를 담아 해석하고 공감하는 위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설치 공예그룹 모노컬렉트, 인터랙티브 아티스트 팀보이드, 건축가 이대송, 디자이너 서동주, 설치미술가 윤민섭, 김재원, 부지현, 오유경, 최성임, 작곡가 도제명, 일러스트레이터 디어데이즈 등 총 11팀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기발한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전통과 현대, 순수와 실용 등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는 2015 설화문화전은 감각의 신선함으로 가득하다. S

2015 설화 문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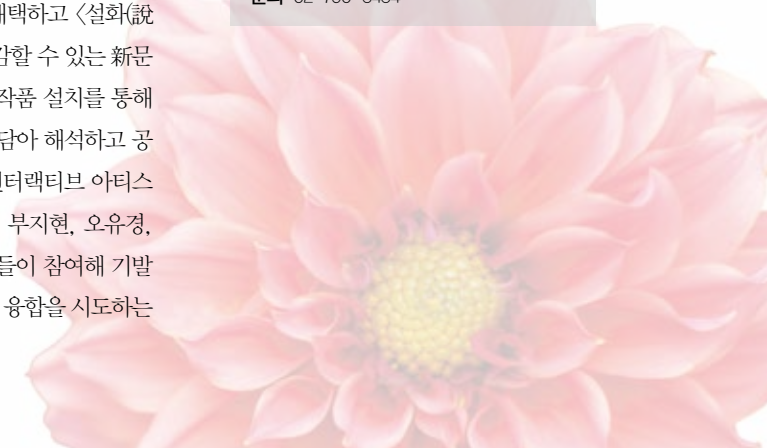
설화(說話):
Once upon a time-백일홍 이야기

일정 2015. 11. 24(화) ~ 12. 19(토)

장소 블루스퀘어 內 네모 갤러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운영 시간 주중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문의 02-790-5454



2012

흙, 숨 쉬다. 옹기

전시장소 학교재 갤러리
디렉터 SWBK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다양한 쓰임새로 존재하였으나 그 지체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옹기를 재조명하였다. '흙, 숨 쉬다. 옹기'를 주제로 강진, 제주, 울산 등 각 지역의 특색이 배인 옹기와 함께 미디어 아티스트, 가구 디자이너, 도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옹기를 소재로 새로이 완성한 1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2013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전시장소 갤러리 인
디렉터 하지훈

전통 공시 장인부터 조각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장르와 관심사, 표현방식 어느 것 하나 닮은꼴을 찾기 힘든 아티스트들이 '활'이라는 주제 아래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다. 전통 공시의 원형에서부터 새로이 구현한 현대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4

SKIN=NIKS

전시장소 설화수 갤러리
디렉터 안기현, 이만수, 신민재 (AnLStudio)

SKIN과 SKIN이 반전된 NIKS를 조합한 'SKIN=NIKS'는 전통과 현대, 내면과 외면, 물체와 환경 등 평소 인지하지 못하지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여러 매개체 간의 경계로서 적용하는 스킨SKIN을 주제로, 관점 혹은 감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전통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가치에 반전의 재미를 더한 전시를 선보였다.





한국 고유의 색감이 피부에 화사하게 피어나다

설화수는 격조 있고 세련된 한국 고유의 색감을 담은 '2015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을 11월부터 한정 판매한다. 실란 메이크업은 2003년부터 한국 전통 문양이나 소재 및 기법을 테마로 한 디자인으로 꾸준히 출시되어 왔다. 2015년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은 장신구 공예가 이현경, 구은경, 이혜민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다. 특히 이번 실란 메이크업 케이스는 '모조법'이라는 전통적인 자개 공예 기법을 도입하여 수공예적 감성을 더하고 매화 꽃술 모양 위에 자개 패를 얹어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장식했다. 이를 통해 자개 공예의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풍부한 질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는 마이크로 슬라이딩 파우더가 피부 위에 미끄러지듯 도포되어 화장 후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를 느낄 수 있으며, 제품의 은은한 매화 향은 마음에 안정을 선사한다.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마무리해주는 '실란 콤팩트'와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표현해주는 블러셔 겸 하이라이터 '실란 컬러팩트' 2종을 선보인다. 실란 콤팩트 10g×2, 15만원대/ 실란 컬러팩트 10g, 15만원대(브러시 포함)

시대를 초월한 명작 속으로! 뮤지컬 <시카고>

지난해 평균 객석 점유율 90퍼센트를 기록하며 한국 공연 역사상 최고 시즌을 보낸 뮤지컬 <시카고> 영광의 주인공들이 2015년 공연을 위해 다시 뭉쳤다. 벨마 켈리 역에 최정원, 록시 하트 역에 아이비, 빌리 플린 역은 이종혁과 성기윤, 마마 모튼 역은 전수경과 김경선 그리고 14인조 <시카고> 빅밴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두 여주인공 '벨마'와 '록시' 역의 최정원과 아이비는 이번 시즌에도 단일 캐스팅으로 98회 공연을 책임진다. <시카고>는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중에서도 재즈와 갱 문화가 발달했던 시카고를 배경으로, 관능적 유희와 살인이라는 테마로 완성된 작품이다. 화려한 춤과 노래, 농염한 재즈 선율이 무대를 장악하는 뮤지컬 <시카고>는 다른 공연과 달리 빅밴드가 무대 정중앙에 계단형으로 위치하여 제2의 배우로 극에 참여한다. 지휘자가 익살맞게 배우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과 막간에 연주되는 신나는 밴드의 에드트리브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한다. **일시** ~2016년 11월 1일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1544-1555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시카고>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유키 구라모토와 오케스트라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감미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리처드 용재 오닐, 신지아 등 클래식 스타가 출동해 들려주는 연주는 더욱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유키 구라모토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스페셜 공연 <2015 크리스마스 콘서트-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을 펼친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울리는 유키 구라모토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오랜 세월 한국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특히 크리스마스 공연은 해마다 매진되는 한국 투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펼치는 무대다. 유키가 직접 준비하는 따뜻한 한국어 인사말과 베스트 컬렉션, 크리스마스 스페셜 메들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매년 생각나는 또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중형무진 활동 중인 리처드 용재 오닐 또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레퍼토리를 엄선한다. 올해는 특별히 바이올린 여신 신지아가 피아솔라의 <사계>로 합류했다.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유키 구라모토의 오케스트라 파트너로 맹활약 중인 디토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지휘자 백윤화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12월 25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1577-5266

뮤지컬 <베르테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베르테르>가 15주년을 맞이해 더욱 강렬한 무대로 돌아온다.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한층 더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이번 공연은 베르테르 역에 엄기준, 조승우, 규현이 캐스팅됐다. **일시** 11월 10일~2016년 1월 10일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1544-1555

전시 <알레산드로 멘디니> 전



멘디니의 40년 작품 인생을 집약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린다. 건축가이자 산업디자이너, 예술가인 멘디니는 이번 전시회에서 생활용품부터 가구, 회화 등 총 6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디자인으로 쓴 시'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일시** ~2016년 2월 28일 **장소** DDP 디자인전시관 문의 02-3143-4360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 남한강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다시 돌아왔다. 영월에서 시작해 단양, 제천, 충주, 원주, 여주를 거쳐 한강을 향해 이어지는 유홍준 교수의 이번 답사기는 남한강 유역에 산재한 수려한 경관과 평화로운 강변 마을의 풍경, 각지의 문화유산에 얽힌 풍성한 이야기로 우리를 또다시 감탄하게 한다. **지은이** 유홍준 **출판사** 창비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여진에센스(5명)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에센스입니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시카고> 관람권(4명)

화려한 춤과 무대, 농염한 재즈 선율이 눈과 귀를 즐겁게하는 뮤지컬 <시카고>의 관람권을 4명(1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5년 1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뮤지컬 <시카고>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5년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여진에센스(5명)

- 김미정 서울 동작구 흑석동
- 김승아 서울 강동구 명일동
- 김영숙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 박혜순 부천 소사구 중동로
- 신승우 경남 양산시 주남동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관람권(4명)

- 김민정 경기 김포시 풍무동
- 김윤정 서울 성북구 돈암동
- 김유미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윤현희 서울 관악구 신림동

2015년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폼격 있는 삶(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7	6	5	4	3	2	1
新 공간을 보다(22p)	7	6	5	4	3	2	1
건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2p)	7	6	5	4	3	2	1
설화풍경(48p)	7	6	5	4	3	2	1
설화보감(52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58p)	7	6	5	4	3	2	1
디자인 기행(64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72p)	7	6	5	4	3	2	1
한국의 멋(78p)	7	6	5	4	3	2	1
읽다(82p)	7	6	5	4	3	2	1
설화에장(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88p)	7	6	5	4	3	2	1
몸 단장(90p)	7	6	5	4	3	2	1
마음 단장(92p)	7	6	5	4	3	2	1
설화 헤리티지(94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 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뮤지컬 <시카고>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